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62호

Wednesday, October 30, 2024 A

‘트럼프 테마주’ 21% 급등, 비트코인도 불붙어

시장은 트럼프에 베팅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여론조사는 박빙이지만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과 미국 국채 수익률(금리)이 강세인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도 불이 붙었다.

블룸버그 팟캐스트는 28일 주요 여론조사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등하다는 결과를 보이지만 월가에선 트럼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선 트럼프 당선에 베팅하고 한발 앞서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트럼프 트레이드’라 부르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관세 인상·정부 지출 확대 등 ‘확장 재정정책’을 폈다.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국



[사진=로이터]

채 발행을 늘릴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최근 3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를 반기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 투자 전문기자 존 어서스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확장적 경제정책에 따른 광범위한 주식 강세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번바 ‘트럼프 테마주’는 급등세를 보였다. 트럼프가 지분 57%를 보유한 트럼프미디어엔테크놀로지(TMTG) 그룹의 주가는 이날 21.59%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특히 10월에만 주가 상승률이 195%다. TMTG의 제휴 업체인 비디오 플랫폼 럼블 주가도 14.08% 올랐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도 29일 0시 기준, 7만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가 지난 3월 중순 기록한 7만3000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최고가 경신 턱말까지 가격이 올라온 것이다.

헤지펀드 사타델 창립자인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도 29일 트럼프의 승리를 점쳤다. 그리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투자 관련 토크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전망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철홍 기자

3일 서머타임 해제 새벽 2시를 1시로



중앙일보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이 3일(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돼 오전 2시가 1시로 바뀐다. 서머타임 해제로 워싱턴지역과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한 시간 늘어난다. 내년 서머타임은 3월9일(일) 새벽 2시가 3시로 변경되면서 시작되며 11월 2일(일) 새벽에 해제된다.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발표 재정 어려운 800만 명 대상

대선을 코앞에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교육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800만 명의 대졸자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보육비·자연재해로 인한 비용 등 다른 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대졸자 약 800만 명에게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2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80%라고 판단되는 대졸자의 부채가 탕감될 전망이다. 제안된 계획은 향후 몇 주 내로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에도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는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WP 36년만에 대선후보 지지 포기 “구독자 20만명 잃었다”

소유주 제프 베조스 “해리스 지지 사실 막아”

워싱턴포스트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신문 소유주 제프 베조스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약 20만명의 구독자가 구독을 취소했으며 워싱턴포스트 소속 칼럼리스트 11명이 공동비난성명서에 서명했고, 저명한 칼럼리스트 로버트 케이건이 사퇴했다.

언론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풀리처상 수상자인 유진 로빈슨과 워싱턴 포스트의 전 부국장 루스 마커스 등은 “워

싱턴포스트의 이번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실수”라고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대선 시즌마다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사실을 게재해왔다. 워싱턴포스트는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 등 최근 6번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워싱턴포스트 측은 20만명 정도의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의 온오프라인 구독자는 전 세계적으로 250만명에 달해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분석이다.

김옥재 기자

▶ 2면 ‘WP 구독자’로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줄서서 사전투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휠체어를 탄 여성을 밀어주고 있다. 유권자들과 줄지어 차례를 기다린 바이든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AP=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받지 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섬” 찬조연설에 트럼프 막판 역풍

600만 푸에르토리코계 표심 흔들
해리스 ‘막말 역풍’ 겨냥해 총공세
“반도체법 폐지, 국익 아니다” 비판도
트럼프 “IRA는 신중 녹색사기” 반격

대선일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무대에 오른 찬조연설자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반도체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투표권을 없지만, 미국으로 이주해 투표권을 얻은 푸에르토리코계는 600만명에 달한다. 히스패닉 유권자 중에선 멕시코계보다 더 큰 규모다.

2020년 대선 때보다 낮은 히스패닉 지지율로 고심해온 해리스 캠프는 ‘쓰레기 섬’ 발언의 역풍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은 푸에르토리코 음식점에서 푸에르토리코 경제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면서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어주고 투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28일 미시간주 험볼트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열린 국가신앙자문서밋에서 기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를 겨냥해 새로운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해리스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을 없애겠다는 트럼프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해리스는 이날 또 다른 경합주인 미시간주 험볼트반도체 공장을 돌아본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며칠 전 반도체법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 법은 지금 여기서 하는 일과 같은 것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대통령이었을 때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팔았고, 그것은 중국이 군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이는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인 국가 안보와 번영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5일 라디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비판하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정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산물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신중 녹색사기”로 규정하며 재선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을 향해 ‘파시스트’라고 비난한 해리스를 겨냥해 “악마화, 혐오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카멜라의 새로운 주장은 그녀에게 투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나치라는 것이다. 우리가 나치라는 것”이라며 “아버지는 늘 나치나 히틀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가르쳤고 난 나치가 아니다. 나치의 반대다”고 강조

했다. 해리스는 지난 23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 발언을 인용해 “켈리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파시스트”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 파우더 스프링스에서 열린 국가신앙자문서밋에 참석해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암살 시도범의 총격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귀에 상처만 입은 채 끝난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그분(하느님)이 미국과 세계에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싱턴=김형구 특파원

▶ 1면 ‘WP 구독자’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주의 개입으로 언론사 구성원 대부분이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으며, 특히 워싱턴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각을 세우고 2021년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이후 온오프라인 신문 제호 위에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 죽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등 반트럼프 전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해온터라 이중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등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가 거대 IT기업인 아마존 창업주 베조스에게 넘어가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윌리엄 루이스 워싱턴포스트 CEO는 입장문을 통해 “워싱턴 포스트가 특정 대선 후보를 처음 지지한 것은 1976년이 처음이었으며, 이번 결정은 창간 초기의 ‘특정 후보 지지 거부’ 철학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베조스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자신이 소유한 우주항공기업 블루오리진과 아마존의 미래에 베푼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워싱턴포스트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호재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좌파의 자기분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역 300만명 이미 조기 투표

워싱턴 지역 유권자 300만명이 이미 조기투표와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추계에 의하면 10월28일 현재 현장 조기투표 122만7298명, 우편투표 35만9409명이 참가했다.

메릴랜드도 현장 조기투표 44만453명, 우편투표 47만8447명이 참가했다. 버지니아가 지난 9월20일부터 조기투표에 들어갔으며, 11월2일 마감한다. 워싱턴DC 마감일은 11월3일이다.

메릴랜드는 10월24일부터 시작했으며 10월31일 마감한다. 메릴랜드의 우



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인터넷 신청은 11월1일)이며 투표일 당일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치렀던 2020년 대선에 비해 이번 대선은 우편투표와 조기투표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승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합주를 중심으로 조기투표 및 우편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화당이 조기투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21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도 조기투표와 우편투표 비율이 높았으나 공화당 후보였던 글렌 영킨 주지사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연방상하원의원, 시장, 시의원, 카운티 수퍼바이저의원, 카운티 카운슬 의회 의원, 교육위원 등을 선출한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31일(목)	82~68	3일(일)	65~51
1일(금)	78~46	4일(월)	71~55
10월 30일(수)	79~61	2일(토)	61~40
		5일(화)	75~5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에릭 저겐슨 변호사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막스 변호사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을 드립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Virginia Car Accident Claims

선거 후유증 걱정엔 소비 패턴도 변화

기존 여행 예약 취소 등

오는 11월 대선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각종 여행 계획 등을 취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여행정보 사이트 버케이션서너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64%가 선거가 끝난 후 어수선한 시국에 가족 동반 여행 등을 미루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에 의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여행을 미루겠다는 응답이 1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가 나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응

답이 36%였다. 실제로 선거일이 포함된 주의 여행 예약률도 작년 같은 기간 등에 비해 19% 줄었다. 에밀리 리스(MD 몽고메리 카운티)는 "매년 추수감사절 연후에는 하와이, 플로리다 등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올해에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면서 "아이 나이가 두살에 불과

하다는 사실이 가장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기가 바로 선거 직후부터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사이다. 추수감사절이 선거일 이후 가장 가까운 연휴라는 점 때문에 관련 여행상품 취소사태가 일고 있다.

에드 배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선거일을 전후한 기간 평화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자체가 의심받기는 힘들다"면서 "국민들이 이미 4년전 아픔 때문에 폭동 등을 우려해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가을 VIP 초청 만찬 성료

KCBMC 동부연합회

북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KCBMC) 동부연합회(연합회장 김형주)가 주최하고,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 지회(지회장 변보림)가 후원하는 'CBMC 비즈니스 성장 세미나'가 지난 25일 메릴랜드 콜롬비아 소재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렸다. 5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는 전

동부연합회장 안일송 변호사와 전 엘리콧 시티 지회장 김경태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24명 VIP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세미나 및 CMBC 사역을 소개했다.

더불어 강교은(북미주 KCBMC) 이사가 CBMC 정체성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으며 한기덕 증경회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미 기자**



참석자들이 안일송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있다.

재미대한사격연맹배 사격대회

오는 2일 센터빌서 개최

워싱턴DC 재미대한사격연맹배 트랩 슈팅대회가 오는 2일(토) 버지니아 센터빌 소재 사격장에서 개최된다.



아메리칸 트랩 슈팅, 100 싱글즈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의 참가비는 100달러(연맹회원 560달러)로 사격장 사용료, 기념품, 추천권 및 점심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대회 챔피언 및 일반, 여성부 1,2,3 등 및 신인상, 주니어 챔피언 수상자들에게는 시상 및 상품이 수여된다. 지대성 회장은 "대회에서 모금되는 후원금 등은 협회 운영 및 2025년 달라스 미주제전 참가경비 등으로 사용된

다"며 "사격의 묘미와 스포츠로써의 기쁨과 감동을 대회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K마켓, 남버1골프라운지, 시루, 한국 자동차, 각종 식당 등이 후원한다.

▷일시: 11월2일(토) 8시30분
▷장소: 14708 Mt. Olive Road Centreville, VA
▷문의: 202-384-4240(지대성 회장) **김윤미 기자**

고대교우회, 백승자 차기회장 선출

고려대학교 워싱턴 교우회(회장 이기훈)가 정기총회를 갖고 백승자 수석부회장(가정교육학과, 82년)을 만장일치로 차기 교우회장으로 선출했다.

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6일 설악가든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백승자 차기회장은 "두 자녀와 함께 교우가족으로서 작년에 본교에 새로운 회장으로서 임명되었고, 이번에 새로운 회장으로서 선출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난 5년간 함께 했던 임원진과 앞으로 임명할 부회장을 비롯 여러 교우의 도움에 힘입어 다시 과거의 풍성했던 교우회로 회복시

이기에 회장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직 워싱턴교우회의 활성화가 완성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회장과 함께 젊은 교우들을 교우회로 인도하고 워싱턴에 유학생과 공무원 또는 지상사 직원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교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 임원들은 지난 2년간 워싱턴교우회의 활동과 재정지출을 승인했고, 각종 사업활동 등을 논의했다. **김윤미 기자**



고대교우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 위 사진) 백승자 차기회장.

"비시민권자 투표권 복원 시켜라"

연방법원-VA 법무부

유권자 명부 놓고 진흙탕 싸움

버지니아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복원 명령에 불복해 긴급 항고했다. 1심 법원인 연방지방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에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한 1600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거부하자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고를 선택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연방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차량등록국(DMV)의 유권자 등록서류를 전수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시민권자 1600명의 유권자 자격을 박탈했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장관은 "주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고 투표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주정부의 행정행위는 매우 정당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편향적으로 적용시킨 판결이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자격 없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하는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일리 없다"면서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선거일 25일 전에 제거했는데, 18년 전 개정된 버지니아선거법에 매우 합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버지니아는 2006년 민주당 출신의 팀 케인 전 주지사(현 연방상원의원) 책임 시절 이같은 법률을 개정했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투표합시다!
DNC 2024
VOTE on NOV. 5, 2024
TOGETHER, WE CAN WIN THIS!
ASIAN for HARRIS
Korean-American seniors support this VOTE campaign, "A FUTURE FOR ALL AMERICANS"
DNC 2024 Official Member, TAE CHANG WOO

석지영 하버드 교수 저명 학술상 '배리상'

미국 과학·문학아카데미 선정
"법 작용의 대중적 이해 높여"



해 법이 우리 삶의 가장 친밀하고 민감하며, 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학술적,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기록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 교수의 학문은 예술적 표현, 언론의 자유, 문화적 정체성, 교육학, 심리 트라우마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탐구한다"며 "아카데미는 인류에 대한 석 박사의 뛰어난 공헌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석지영(사진) 하버드 법대 교수가 미국 과학·문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Sciences & Letters)가 수여하는 저명한 학술상인 '배리상(Barry Prize)'을 수상했다. 매년 인류의 지식과 아름다움 등을 위해 뛰어난 기여를 한 학자들에게 수상되는 상으로, 수상자는 매년 아카데미 회원들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배리상 수상자는 상금을 받게 되며, 아카데미 회원 자격도 갖게 된다.

28일 아카데미 측은 배리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석 교수는 법과 법의 발전에 대한 심오한 지식,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의 예리한 통찰력을 결합

석 교수는 아시안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로 임명된 인물이다. 뉴욕커 매거진에 정기 기고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스파, 룸서비스... 반려동물 시장 고급화

신축 주거지에 반려견 시설
고급 임대건물에 전용 욕실
IHG·힐튼·하얏트 숙박 환영
명품 브랜드의 향수도 출시



돌체앤가바나는 창립자 도미니코 돌체의 반려견 페페에서 영감을 받은 반려견용 향수 미스트 '페페'를 출시했다. [돌체앤가바나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동물 산업의 서비스 고급화가 가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족같이 여기는 반려동물을 위해 주거지 편의시설, 호텔, 패션용품, 항공기 등 고급 서비스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려견을 위한 주거지 편의시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반려견 애호가들의 도시인 뉴욕에서 반려견 달리기, 미용, 훈련 서비스 등 반려견 전용 편의시설을 갖춘 신축 주거 공간이 늘고 있다.

반려견 달리기 공간이 있는 '77 그린 위치'와 '555텐', 실내 반려견 놀이방, 세척장, 훈련 스튜디오가 있는 '워터라인 스퀘어', 반려견 전용 스파가 있는 '50 웨스트'가 대표적이다.

'277 피스 에비뉴'는 반려견 훈련, 산책, 부티크 그루밍 스파, 데이 클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 인근에 있는 '피어하우스'는 건축가 조나단 마블이 설계한 반려동물 스파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공원이 내다보이는 스파 라운지는 반려견 간식 펜트리와 반려견 샤워실 2개를 갖추고 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도 고급 임대 건물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은 대형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반려견 세척장이다.

LIV 소더비스 인터내셔널 리얼티의 부동산 에이전트 로빈 레이크는 "덴버 인구의 4명 중 3명이 대형견을 키우고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견주들이 반려견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호텔들도 룸서비스, 산책, 돌봄, 맞춤형 간식 등 반려동물 친화적인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호텔은 IHG, 힐튼, 하얏트, 베스트웨스턴, 메리어트 등이다.

개인금융전문업체 너드웰렛 분석에 따르면 반려견을 위한 최고 호텔은 IHG이다. 호텔 평균 반려동물 요금은 IHG의 60달러부터 메리어트 호텔의 121.82달러까지 다양하다.

반려동물 전용 서비스가 고급화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항공여행은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화물칸에 실려 비행한다.

지난 5월 글로벌 반려견 브랜드 '바크'는 제트기 회사와 협력해 반려견 전용기인 바크에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크에어는 탑승 전 컨시어지가 게이트에서 반려견을 맞이하고 탑승 후 항공여행 전 객실 적응을 돕는다.

바크에어의 편도 티켓 가격은 국내선 600달러, 국제선 800달러로 장난감, 간식, 기내 반려견 스파가 포함된다.

반려동물 시장이 고급화되면서 명품 브랜드도 반려견 전용 향수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돌체앤가바나는 창립자 도미니코 돌체의 반려견 페페에서 영감을 받은 반려견용 향수 미스트 '페페'를 출시했다. 알코올 프리 향수로 약 108.13달러다.

향수 케이스는 녹색 유리병에 빨간색 금속 캡과 24캐럿 금도금으로 장식되어 있다. 돌체앤가바나 측은 "수의사가 승인하고 안전테스트를 거쳐 반려견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향수"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고급화되면서 미국 반려동물협회(APPA)는 올해 산업 규모가 15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669억 달러)과 케어용품(391억 달러)이 전년 대비 각각 3.9%, 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영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무리 수순

내달 초 EC 최종 승인 전망
잇단 노조 반발 선결 과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넘겨준 유럽 여객 4개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약한 달간 지켜본 뒤 이르면 내달 초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마무리했다.

EC는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EC의 최종 승인 이후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된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를 제

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리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했다.

내달 중 미국의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월 뒤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2020년 말부터 추진한 기업결합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이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기업결합이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신주인수 거래 이후 양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및 조직 정비,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 실질적인 결함을 위한 절차가 이어진다. 인수합병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일반노조는 오는 28일 양사 통합계획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달걀 8%·설탕 10%·커피 40%대... 물가 상승 비상

전 세계 식료품 가격 급등 조짐
가뭄·폭우·전쟁 여파 불안 확산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조금씩 막을 내리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은 다시 상승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주요 원재료가 오르면서다. 특히 달걀과 유제품, 커피 원두와 카카오 등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재료 가격이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3% 상승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달 발표하는 지표다. 지난달 상승 폭은 2022

년 3월 이후 가장 크다. 특히 9월에는 모든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 탓에 설탕가격지수가 전월보다 10.4% 올랐고, 국제 밀 가격도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캐나다와 유럽의 다습한 날씨로 수확이 지연된 영향이다.

가뭄과 폭우 영향으로 커피 원두와 코코아 가격도 상승세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아라비카 원두와 로부스터 원두의 국제 가격은 연초 대비 각각 32.7%·47.6% 오른 상태다.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다. 코코아 가격도 폭염 여파로 연

초 대비 63.7% 폭등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계란·버터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후변화에 더해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식료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다.

세계 계란 평균 가격은 2019년에 비해 60% 급등했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선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계란값을 더욱 끌어올렸다. 미국에선 지난달 계란 가격이 한 달 사이 8.4% 올랐다.

주요 원재료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미국에선 지난달 식품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로 집계됐다. 지난 1월(2.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오효정 기자

10센트 동전 50만불 500만배 뽀 값에 낙찰

오하이오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숨겨둔 10센트 희귀 동전(사진)이 50만 달러 이상 고가로 낙찰돼 화제다.

여바인에 있는 경매회사인 그레이트 컬렉션 대표에 따르면 희귀 다임이 27일

온라인 경매에서 212건의 입찰 경쟁 끝에 500만 배 뽀 50만6250달러에 팔렸다.

1975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조폐국에서 주조된 이 다임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는 정면



에 샌프란시스코 조폐국 문자 'S' 마크가 없이 만들어진 2개 동전 중 한 개다.

샌프란시스코의 조폐국은 1975년 280만 개 이상 특별한 동

전 세트를 만들어 7달러에 판매했다. 몇 년 후 수집가들은 이 세트의 10센트짜리 동전 두 개에 조폐국 표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 자매 부모는 1978년 첫 번째 오류 동전을 1만8200달러에 구매했다. 이는 오늘날 약 9만 달러 가치에 해당한다. 세 자매는 낙농장을 운영하

던 부모가 이 동전을 가족을 위한 재정 안전망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1975년 'S' 마크가 없는 또 다른 10센트 동전은 2019년 경매에서 45만6000달러에 판매했다. 현재 루즈벨트 다임 수집가에게 51만6000달러에 팔렸다고 경매장은 밝혔다. 이은영 기자

2025 메디케어 보험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무료상담!!

"혹" 달라진 보험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과 \$3000의 치과 커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03-591-0009
703-537-9899

전화 주실 분

- ◆ 보험변경 하실 분
- ◆ 65세와 1960년생
-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소지자
- ◆ 치과 커버 필요하신 분
- ◆ 안경 혜택과 OTC 혜택

조은혜 종합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건물 2층)

Partner
보험회사

앤티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힐스트 / 웰케어

학비 서류심사 강화, 학부모 부담 커져

SAI 금액 높여 재정보조 축소
올해 심사 때부터 이미 적용
집단소송이 미칠 영향에 주목
기재 오류시 불이익에 주의



40개 유명 사립 대학이 학비 산정 과정에서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의 자산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피소된 가운데, 학비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송은 재정난 타파를 위해 학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려는 대학 측과 학생 간의 갈등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서류 심사 강화 추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대학이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 검토 시 요구하는 '대학장학금 지원 개요서(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하 CSS 프로파일)'다. 이 CSS 프로파일을 통해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대학들이 CSS 프로파일을 토대로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한 '학

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이하 SAI)'까지 적용하고 있다.

SAI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학생의 재정 보조금을 계산하는 지수다. SAI 계산은 CSS 프로파일과 재정보조신청서(FAFSA)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학생 가족의 비과세 소득은 물론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실업수당까지 SAI 계산에 반영된다. 그만큼 대학들이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CSS 프로파일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SAI 금액 계산에 적용된다"며 "특히 금년의 경우 더 많은 수입과 자산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 수가 늘다 보니 SAI 금액의 큰 증감으로 재정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번 소송의 쟁점대로라면 CSS 프로파일에 비양육 부모의 자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SAI가 증가하게 된다. SAI는 낮아질수록 학생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각 대학이 비양육 부모의 자산 포함 등을 통해 이 지수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CSS 프로파일은 한 번 서류를 제출하면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LA 지역 학자금 재정보조 한 컨설턴트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CSS 프로파일과 FAFSA의 기재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허위 기재 등의 의심까지 받는다"며 "최근 연방 교육부가 FAFSA 신청시 '제3자'가 대행하는 행위 등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에일린 장(코넬대), 맥스웰 한센(보스턴대) 등이 SAT 주관 기관인 칼리지보드와 40개 사립 대학이 반복적법 등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 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버드대, 카네기 멜론대, 존스 홉킨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가주에서는 USC, 캘텍(Caltech), 스탠퍼드대도 피고에 이름을 올렸다.

장영기 기자

만나봤습니다

뉴스타 부동산학교 에드워드 오 대표

“라이선스부터 실전까지 책임집니다”

28일 제85기 부동산 학교를 개강한 뉴스타 부동산 에드워드 오(사진)대표를 만났다. 지난 2007년에 첫 기수를 시작으로 부동산 학교를 17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오 대표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려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고소득 전문직인 부동산 에이전트에 도전할 분들의 관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에이전트의 자격조건은?

“자격 조건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우선 18세 이상의 성인중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기록이 있으면 된다. 물론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포함이다. 그 후에 뉴스타 부동산 학교 같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전문 학교를 통해서 수업을 받고 시험 2과목을 패스하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는 경력사유가 없어야 한다. 우선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 협회에서 예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처음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그에 관한 서류를 꼭 같이 제출해야 한다.”

-뉴스타 부동산 학교의 장점은?

“뉴스타 부동산은 버지니아, DC, 메릴랜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17년간 수업을 해온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식 족집게식 수업을 진행하고 자체 제작한 한글 교재를 사용한다. 게다가 팬데믹 기간 시작한 원격 수업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수업 자체는 6주이고 수업 이후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 뉴스타 부동산 학교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100% 합격을 보장한다고 한다. 전문 법대

교수님이 제공해 드리는 양질의 수업 내용과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한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철저한 준비를 시켜준다.”

-라이선스를 따고 난 후에 어떻게 되나?

“시험을 패스한 후에는 뉴스타 부동산에서 에이전트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10주안에 걸친 실전교육을 제공한다. 라이선스만 있다고 에이전트로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실질적인 교육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 에이전트로 성장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교육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에이전트는 말을 잘하고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는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손님 한분 한분에 정성을 다 하는 에이전트가 성공한다. 그리고 이런 성공하는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가장 중요하다.”

▷문의: 703-496-4989

▷주소: 8230 Leesburg Pike #650 Tysons Corner, VA

아시안 부모 20%, 보육비용 큰 부담

육아로 직장 잃을까 걱정도
새로운 대선 쟁점 떠올라

커져 가는 보육비 부담에 '보육 비용'이 올해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안 부모 5명 중 1명이 보육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부모 20%가 '지난 12개월 동안 보육비를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의 28%가 같은 답을 내렸으며, ▶히스패닉(25%) ▶아시안(20%) ▶백인(16%) 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 부담은 더 심각했다. 저소득 가정의 28%가 '보육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중간소득 가정의 16%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일부 직장인 부모들은 육아로 인해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기도 했다. 전국 직장인 부모 5명 중 1명(19%)은 '육아 문제로 인해 휴직할 경우 급여 손실이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저소득층 직장인 부모 중 45%가 해당 질문에 대해 같은 답을 내렸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많은 부모들은 '무료 보육 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출산율은 집계를 시작한 1930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

데, 전국 성인 60%는 '연방 정부가 무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직원에게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는 것(51%) ▶부모에게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49%)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별 지급금을 제공하는 것(45%) 등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한편 전국 성인들이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가질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0세 미만 성인 중 36%는 그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① 워싱턴중앙일보 광고·구독 : 703-281-9660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리조물) 헤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상위 1% 부자, 일반인 수백년치 탄소 배출

호화 요트와 전용기 이용 오염 산업 투자도 일조 역만장자 연평균 2074t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배출하는 탄소가 기아, 빈곤을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28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 '생명을 죽이는 탄소 불평등'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역만장자들의 사치스러운 교통수단과 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모두 살펴본 최초의 연구다.

옥스팜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의 역만장자는 호화 요트, 전용기 이



상위 1% 부자는 1년에 일반인들의 300년 배출과 맞먹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전용기가 세워져 있다. [로이테]

용, 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일반인이 평생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평균 1시간30분이면 일반인의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이들 역만장자는 1년 동안 평균 184회 전용기를 타고, 공중에서 425시간을 보내면서 일반인이 300년간 배출하

는 것과 맞먹는 양인 연간 평균 2074t의 탄소를 뿜어낸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기간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호화 요트 사용으로 배출하는 탄소는 일반인이 860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고 옥스팜은 덧붙였다.

옥스팜은 또 이 부자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약 40%가 석유, 광업, 해운, 시

멘트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옥스팜에 따르면 베이조스의 전용기 두 대는 12개월 동안 거의 25일을 비행하며 평범한 아마존 직원이 207년간 배출할 만큼의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머스크 CEO의 전용기 두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일반인이 834년간 배출하는 양에 상당하는 규모로 분석됐다.

옥스팜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오염을 유발하는 투자에 따른 극심한 탄소 배출은 불평등, 기아를 부채질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상위 1% 부유층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누진 소득세 및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영희 기자**

브리프

웨이모, 56억 달러 펀딩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5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웨이모는 최근 진행한 56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C 펀딩(투자 유치)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탈(VC) 앤드 리슨 호로비츠, 타이거 글로벌, 피델리티 등 초기 투자자들이 이번 라운드를 주도했다. 구체적인 투자자와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의 경우 지난 7월 웨이모에 향후 수년간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펀딩으로 웨이모의 총 유치 자금은 110억 달러를 넘었다. 웨이모는 앞선 두 번의 투자 유치를 통해 각각 32억 달러와 25억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가세로 국내에서 로보택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웨이모는 이번 펀딩으로 한발 앞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웨이모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테케트라 마와카나와 드미트리 돌고프는 이번 투자금은 웨이모의 서비스 지역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 식중독 피해 증가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햄버거 대장균 식중독 사태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5일 13개 주에서 75명이 O157:H7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O157:H7은 쿼터 파운드 햄버거에서 검출된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대장균 변종이다.

이 중 22명이 입원했고 노인 1명은 사망했다. 입원 환자 가운데 2명은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용혈성 용독 증후군 증세를 보였다.

이 질환은 적혈구가 파괴되고,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발표 수는 지난 22일 CDC 발표보다 늘어난 것이다. 3일 전에는 10개 주에서 4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1명이 숨지고 10명이 입원 중이라고 CDC가 발표한 바 있다.

국제유가 5%대 급락 WTI 2년래 최대 낙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일단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 오전장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5% 넘게 하락했다.

근월물인 12월물 WTI 가격은 이날 한때 전일 대비 6% 이상 밀리며 베럴당 66.93달러로 저점을 낮췄다. WTI가 이토록 큰 폭으로 밀린 것은 2022년 7월 12일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벤처마크인 12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전일 대비 5% 넘게 밀린 72달러

대에서 움직였다.

국제유가는 전일 아시아 시간대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시설만 겨냥하고, 정유와 석유 시설은 피해 보복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측은 강경한 표현을 자제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겠다고 당장 맞보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

월가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원유시장의 수급이 크게 교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6개월만에 7만2천달러선 돌파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며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2분(서부 시간 오전 8시 5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55% 급등한 7만2천316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4개월여만에 7만 달러선을 탈환한 데 이어 하루 만에 7만2천 달러선도 뛰어넘었다. 비트코인이 7만2천 달러선에 거래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지난 3월 13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7만3천800달러에 한발짝 다가섰다.

비트코인 급등은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서는 보다 친 가상화폐

적인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친 가상화폐 입장을 밝혀왔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처벌 중심의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미국의 11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달에만 약 36억 달러의 순유입액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AI 비서 등장할까

빅테크 시에이전트 경쟁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사람같이 대화하며 복잡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AI) 비서를 현실에서 고용할 수 있을까.

지난 26일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프로젝트 자비스'라는 코드명으로 AI 에이전트(비서)를 개발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젝트 자비스는 연구 자료 수집, 제품 구매, 항공권 예약 등 작업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의 웹 브라우저를 '장악'한다. 자비스는 사람 명령에 따라 컴퓨터 화면에 있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고, 이를 스스로 해석해 버튼을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AI 비서는 생성 AI 개발 및 서비스화의 궁극적 목표로 꼽혀왔다.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그간 개발해 온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생성 AI를 한꺼번에 적용해야만 가능한 서비스라 하다.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 5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올해 AI 비서가 차세대 거대언어모델(LLM)보다 큰 AI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AI 비서 개발에 뛰어든 상황이다. 지난 22일 국내 AI 스타트업 앤스토피아 공개한 '클로드 3.5 소네트' 내 베타 기능으로 추가된 컴퓨터 사용 서비스가 그런 예다. 컴퓨터 스크린을 해석해 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AI) 비서 자비스는 사람같이 대화하며 주인공의 모든 명령을 알아듣고 실행하는 복합기능형 AI 비서 기능을 보여준다. [영화 '아이언맨' 캡처]

스로 커서를 움직여 버튼을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고 웹사이트를 탐색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MS AI 투어 인 런던' 행사를 열고 AI '자율 비서' 기능을 발표했다. 자율 비서 역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개인, 팀 또는 부서를 대신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조율할 수 있다.

예컨대 영업 담당자 개입 없이도 AI 비서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조사한 뒤 개인화된 영업용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조달 담당자 없이도 공급 업체의 성과를 자동으로 추적한 뒤 지연 발생에 대비해 자동 대응하는 방식이다.

오픈AI도 커서 이동, 클릭, 텍스트 입력 및 기타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는 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멜라니아 “남편, 히틀러 아냐”

미국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29일 민주당이 자기 남편에 대해 ‘히틀러’, ‘나치’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공격하는 것과 관련, “그는 히틀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남편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그의 조국을 사랑하며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미국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서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낙태권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인지 몰랐지만, 남편은 우리가 처음 만난 이래 (그 문제에 대한) 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세하는 멜라니아 여사.

[로이터]

입장을 안다”면서 “그것은 그에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남편에 대한 암살 시도가 두 차례 있었던 것과 관련, “나는 내가 가는 곳과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면서 “나는 항상 남편에게 ‘행운을 빌고 안전한

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가 아닌 대선 당일에 남편과 함께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지난 27일 뉴욕에서 진행된 유세에 참석해 지원 연설을 했다.

8월 주요도시 주택가격 5.2% ↑

지난 8월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세는 다소 꺾인 모습을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8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29일 밝혔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1%)도 다소 웃돌았다. 다만, 상승률은 8월(전년 대비 5.9%)과 비교해 낮아졌다. 전월 대비로는 0.4%(계절조정 후) 상승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5%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



되는 모습이다.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지난 6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둔화세를 지속했고 개혁이 이뤄지면서 여름 대비 집값 상승 압력이 약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8.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라스베이거스(7.3%), 시카고(7.2%)가 뒤를 따랐다. 콜로라도주 덴버는 집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0.7%로 주요 20개 도시 중 가장 낮았다.

트럼프 책사 배넌, 대선 1주일 앞두고 석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이자 트럼프 추종 세력의 이론가인 스티브 배넌(70·사진)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의회 모욕죄 유죄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대선을 일주일 앞둔 29일 석방됐다.



성향 정책 구상과 선거 전략 등을 공급하는 ‘책사’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데 힘을 보탠 ‘킹메이커’ 중 한 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규명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인 1·6 사태 진상 조사와 관련한 의회 청문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요

구에 협조하지 않아 징역 4개월형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1일 수감됐다.

배넌은 그가 수감 직전까지 운영해 온 팟캐스트 ‘워룸’(War Room)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따르는 이른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공화당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배넌의 석방은 대선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세력 규합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넌은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날 오전 코네티컷주의 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배넌은 NYT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힘을 더 얻었다”고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극우

를 보낸 ‘킹메이커’ 중 한 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첫 공식 사도광산 추도식, 다음달 24일 열린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약속했던 추도식이 다음 달 24일 개최된다고 교도통신과 니가타일보 등이 29일 보도했다.



사도광산 경도 내부에 설치된 모형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첫 추도식은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의 시민문화회관에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를 얻겠다는 취지로 추도식 개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살았던 기숙사 터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전시관 설치를 약속했다.

다음달 24일 예정인 추도식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실행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추도식은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조선인만이 아닌 사도광산에서 일한 전체 노동자를 기리는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의 양국 정부 참석 인사, 장소 등 구체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 앞서 외교부는 관련 질의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보다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최근 추도식과 관련 “일본 정부에서도 정부관급 이상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에서 정부관은 차관(부대신) 보다는 낮은 ‘차관급’ 고위직이다.

추도식 일정은 확정됐지만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대해선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사도섬에 있는 아이카와항도박물관 2층에 별도 전시실을 마련했다. 추도식이 열리는 곳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있다.

도쿄=김현에 특파원

정글서 마야 문명 ‘잃어버린 도시’ 우연히 발견

멕시코 동남부 정글에서 마야 문명의 잃어버린 도시가 발견됐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고고학자들이 레이더를 이용한 위치좌표 측정 시스템인 ‘라이더(Lidar)’를 이용, 멕시코 캄페체주 인근 열대우림에서 마야 문명 유적을 발굴했다.

주변 해안의 이름을 따 ‘발레리아나’로 명명된 이 유적은 피라미드와 경기장, 극장과 독길, 거주 구역 등으로 구성된 복합 도시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크기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레리아나는 현재까지 발견된 마야 도시 가운데 해당 유적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칼라크물 다음으로 거대한

복합 유적이라고 학계는 평가했다.

이 고대 도시에는 3만~5만명 가량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서기 750~850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고 BBC는 보도했다. 연구팀은 구글 검색 도중 우연히 환경 보호를 위해 멕시코의 한 단체에서 진행한 해당 지역의 라이더 조사 자료를 접하게 됐고, 이를 고고학 기법으로 재해석해 발레리아나 유적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히 이번 유적 발굴로 마야인들이 죽기 위해 열대우림으로 들어갔다는 기존 가설을 뒤집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열대우림은 오히려 번성하는 마야 문명의 터전 가운데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러, 우크라이나 동부 진격 속도 붙였다

우크라이나 동부 진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러시아가 29일(현지시간) 동부 지역 4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셸리도베(러시아명 셸리도보) 마을을 완전 점령했다고 밝혔다. 셸리도베는 최근 러시아군이 계속 공격했던 마을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에는 약 2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에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히르니크(고르냐크), 카테리누카(카테리놉카), 보고야블렌카(도브로볼리에) 등 도네츠크의 3개 마

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빠르게 진격하는 반면 열세에 놓인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처지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에 가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AFP 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10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진격 범위를 478㎢ 넓혔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초기인 2022년 3월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군의 지난 8·9월 진격 범위는 각각 477㎢, 459㎢다. 한영혜 기자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13일 카네기홀에서 열린 밀알찬양대축제에서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월드킨더밀알선교합창단, 월드밀알위시퍼스, 필리카메라타합창단 등 참가팀 단원들이 총출연해 마지막 피날레로 연합 합창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 월드밀알]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에 2심도 패소

“신도 폭행 의혹 제기 납득할만”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해 3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자,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 5~6화에는 아가동산에서 신도들에게 종교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5~6화를 넷플릭스에서 삭제·폐기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다른 곳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넷플릭스 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교주인 김씨가 1998년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신이다’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아가동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영상은 ‘아가동산’에 관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혹의 진실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에서 과거 김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족 등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을 인터뷰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영상의 재판 장면 역시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망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폭행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모두 아가동산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시체를 묻고 진술을 반복하는 조건으로 땅을 받았다”는 관계자 증언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서인 기자

카네기홀 올린 밀알 500명 합창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이 주최하고 뉴욕 중앙일보가 특별 후원한 밀알찬양대축제가 지난 13일 뉴욕시 맨해튼 카네기홀에서 개최됐다.

월드밀알은 각 지회가 소재한 지역에서 병원·교도소·요양원, 교회 등을 방문해 사역하고, 1년에 3회 전 세계 밀알단원들이 모여 함께 찬양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매년 10월에 열리는 찬양대축제다. 올해는 한국·독일을 비롯해 유럽·태국·베트남 등 전 세계에서 모인 200여 명의 월드밀알선교합창단 단원들이 참가했다.

이날 찬양대축제는 독일 밀알 김에드 단장과 오영아 아나운서(미주기독교방송국)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박계화 목사(안양함께하는교회 원로)가 개회기도를 했다.

이어 단장 이 다니엘 장로의 지휘로 월드밀알 심포니오케스트라가 ‘길을 만드시는 주’를 서곡으로 연주하고, 이어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이 조성식 지휘

자·사네 수파타라폰·이다니엘 단장의 지휘로 ‘송축해’, ‘파킹’, ‘영광’을 찬양했다. 이어 듀엣으로 김태현 목사와 김하영 자매 부녀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The Prayer’를 찬양했다. 25년째 밀알에서 찬양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 목사는 현재 광주밀알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또 월드밀알 핸드벨 트리오(임원희·박에스더·사네 수파타라폰)는 열정적인 연주로 깊은 울림을 주었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 월드밀알 핸드벨 & 차임과이어는 임원희 지휘자의 인도로 천상의 벨소리를 연주했다. 또 ‘월드밀알 Worshipers’는 ‘I Speak Jesus & Every Praise Medley’를 찬양했다.

그리고 월드밀알어린이 선교합창단(지휘 박소영)이 특별히 찬양대축제를 위해 작곡한 ‘Our Praise is a Stronghold’와 스와힐리어로 된 주기도문인 ‘BabaYetu’를 우리말로 번역 찬양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필라델피아에서 온 필리 카메라타 합창단(지

휘 박혜란)이 ‘은혜와 행복’, ‘길을 만드시는 주’를 은혜롭게 찬양했다.

특별 메시지는 몽골에서 27년째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전용 목사가 전했다. 전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강조했다. 이어 먼길을 달려온 150여 명의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지휘 정성자)이 ‘I Am’과 ‘일어나라 Arise’를 힘차게 찬양했다.

솔로 순서로는 소프라노 이애실 사모가 시아버지 이다니엘 장로의 지휘로 ‘기도’를 아름답게 찬양하고, 다시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는 연합 합창으로, 월드밀알선교합창단·월드킨더밀알선교합창단·월드밀알위시퍼스·필리카메라타합창단·밴쿠버시온선교합창·월드밀알 심포니 오케스트라 500여 명 단원들이 총출연해 한국소리로 ‘거룩한 성’, ‘거룩한 주’, ‘할렐루야’를 찬양했다.

박종원 기자

등불 아래서

헌신도 함정이 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었다. 마침,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두 마리를 낳았다. 너무 기뻐한 농부는 아내에게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했다. 몇 개월이 지나 송아지를 모두 장에 내다 팔려고 가는 길에 그만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 죽고 말았다. 농부가 가슴을 치며 말했다. “아 하필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다니”

조금은 치사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우스갯소다. 그럼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말은 어떤가. 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현이 아닌가? 믿음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일과 이를 받은 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는 일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신에게 바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한다. 성전을 짓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신을 섬기는 방식인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할까? “내가 설령 배가 고프더라도 너희에게 달라고 말하겠느냐? 온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시편 50:10-12)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내서 제물 만들어 오라고 시키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왜 읽기도 어려운 제사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놓았을까?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

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쪼개지고 태워지는 제물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십자가에서 지켰다.

우리는 갖다 바치면서 신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 있다. 왜냐하면 두렵고 불안해서 우리가 만든 신들이기 때문이다.

신앙을 지닌 이들조차도 갖기 쉬운 오해는 우리에게 생명을 포함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우리의 정성이라고 부른다. 아닌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봉사하고 선교를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보험처럼

바친다.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다. 신발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우리의 최고를 바치려는 모든 시도는 다름 아닌 격화소양이다. 시원할 리가 없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주님께 나아오는 유일한 조건은 아픈 마음이며, 지친 어깨요, 자신의 연약을 보는 눈물이며 말조차 하기 힘든 탄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이유이다.
한성운 목사·나성남교교회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임증없는 잇몸, 건강향상 치아는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T. 703-652-4265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2025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선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페어팩스, VA
703-865-8788
엘리콧 시티, MD
410-995-8074



문로리
703-895-7648



장미원
703-486-6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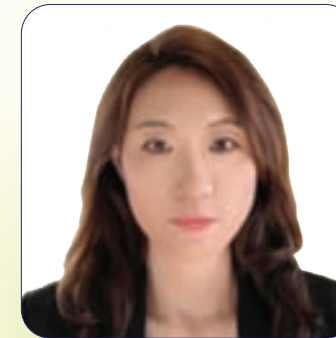


이린다
443-515-8522

리치몬드/
뉴포트 뉴스/
버지니아 비치, VA
804-464-366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804-299-1150



최비양카
757-869-0311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스탑 재정 서비스를 UNI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www.uniwfm.com

VA 페어팩스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VA 리치몬드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VA 뉴포트뉴스	700 Tech Center Pkwy. Suite 200, Newport News, VA 23606
VA 버지니아 비치	249 Central Park Ave. Suite 300, Virginia Beach, VA 23462
MD 엘리콧 시티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비윤·비한 중진 5인 “용산은 결자해지, 여당은 소통을”

(권영세·김기현·나경원·박형준·오세훈)

여권 갈등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마련 요구
갈등 키우는 한동훈 대표측 비판도
일각 “비윤·비한 세력화 시동” 분석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권영세 의원(왼쪽부터)이 29일 서울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권 중진 인사들이 조찬 모임을 갖고 양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5선의 권영세·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시내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국외 일정을 진행 중인 나경원 의원(5선)도 성명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오 시장 제안으로 모인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는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며 “국민 회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실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The buck stops here)’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

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김



나경원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

부에 대해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 측이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날 회동을 두고 여권에선 “비윤·비한 그룹이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선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 의원은 “당내 의원 108명 가운데 친한계와 친윤계는 각각 20~30명에 불과하고, 관망파가 절반을 넘는다고”며 “중진 모임이 관망파와 보조를 맞추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선이나 지역별 모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모임 참석자 5명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명태균석 의회와 관련해 “2021년 서울시장 경선은 의외의 현상

의 연속이었다”(나경원), “자기 정치를 위한 편 가르기와 자중지란”(오세훈)이라며 서로 각을 세웠던 오 시장과 나 의원이 2주 만에 한목소리를 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당 대표를 지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영세·김기현 의원이 정부 비판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차기 주자인 오 시장이 검찰 출신 리더와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거나 “범친윤계도 용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정치 회복을 위해 새 담론을 제시하고 공간을 마련하려 했다”며 “최근 정치가 개인·인물에 따라 갈리면서 민생·혁신·통합에 대한 논의가 너무 빈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행보가 유의미한 세력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5명 모두 현재 정치적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김민정 기자

의총 앞둔 여당 “특별감찰관 찬반 표결은 피해야”

친윤·친한 “표 대결 땀 공멸” 공감
한동훈·추경호 ‘선 합의’ 잇단 요구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국힘의힘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서 “의총 찬반 표결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29일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의총을 하

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만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당내에선 “사전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합의 형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김상훈 정책위의장), “야당이 크게 호응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 표결하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적절한 논의를 먼저 해주면 더 좋을 것”(과규택 수석대변인) 등의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선(先)합의-후(後)의총’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의명을 원한 친한계 의원은 “의총 표결까지 가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며 “‘친

윤 대 친한’ 세 대결로 내용만 노출할 뿐”이라고 했다.

표결을 반대하는 건 친윤계도 마찬가지다. 윤상현 의원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우리 정책 사안이고, 정책을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한 적이 거의 없다. 표결은 분열의 시초가 되고, 결국 공멸로 가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친한계의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총 소집 요구에 따라 추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의총을 열기로 한 상태다.

한편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지출생 대응, 미래산업 육성, 민생 경제 살리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을 정기국회 5대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지원 기자

중국 ‘간첩죄 구속’ 확인... 한국 주재원 “나도 연행될까 걱정”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중 외교부 “법에 따른 정당한 체포”
한인 사회선 “사실 관계 확인 필요”
구속 한국인측 “핵심기술 접근 못해”
전문가 “회복세 한·중 교류에 찬물”

중국 정부가 28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의 구속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당국은 ‘법에 따른 정당한 체포’라는 입장이나 한인 사회에선 모호한 법적 적용에 자칫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 교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걱정도 이어졌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0대 한국 교

민 A씨의 구속에 대해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방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건 A씨가 처음이다.

린 대변인은 관련 조치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련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국은 범죄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A씨가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

가안전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이어 지난 5월 중국 검찰은 신방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치소에 구속했다. 삼성전자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지난 2016년 세워진 중국 장신메모리 테크놀로지(CXMT·長鑫存儲)에 영입된 A씨는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 측은 CXMT 재직 당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소식에 한인 사회에는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업 주재원들 사이에선 중국 반도체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는 혐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명을 요청한 베이징의 한 한

국 주재원은 “한국에서 중국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취업한 전문직들이 특히 동요하고 있다”며 “신방첩법의 모호한 법 조항에 첫 적용 사례까지 나오면서 나도 연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신선영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다들 놀라는 분위기 속에서 명확한 체포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서 더 불안해한다”며 “한·중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교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양국 간 민간 경험 및 인적 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활동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는

신방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적 적용 범위를 넓혔는데,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한·중 인적 교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교민·관광객·기업인의 중국 방문과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기업이 스카우트한 인물이 체포됐다는 점에서 경제인, 기술인 교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건에 관련해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외에 특별히 추가할 점은 없다”고 말했다. 대사관 측은 A씨가 재판을 앞두고 있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 갤럭시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리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SOLD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입자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사업체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델라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음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정심정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소름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0월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산삼 배양근 녹용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엔 마스크

FromBIO

코팅식이섬유 레벤플러스

medifree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안알라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플러스 항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발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용심 인삼인 농협 한삼인 홍삼

10% SALE

100% 홍삼즙 60포/30포

선삼

CJ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플러스

3+1 스페셜

1oz \$45
4oz \$125

프로플러스 스프레이 프로플러스 알콜프리 프로플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C. MORI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BP HEALTH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빼, 관절 건강에 최고!!

콜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작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UmeKen 전제품 판매

석류액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늘환 제오아리 / 재첩액기스 / L칼슘 노니마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최선희 방러, 북한군 배치 속도전 ... 푸틴의 선물도 빨라진다

(북한 외무상)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고리로 한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북한군 파병 규모를 1만 명으로 상향한 가운데 같은 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로 향했다. 지난 9월 16일 방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북한의 파병 속도전에 대응해 러시아의 반대급부 역시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병력 1만 명을 파병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군인 총 1만 명 정도를 파견했으며, 향후 수 주간 러시아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24일 북한군 3000여 명이 러시아에 있다고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연말까지 1만2000 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닷새 만에 벌써 1만여 명 파병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투병력으로서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며 "이는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곧 뒤따른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북·러 간 교류·협력의 추이를 보면 한쪽이 뭘 제공하면, 다른 한쪽이 큰 시차 없이 대가나 보상을 제공하곤 했

파병군 훈련 블라디보스토크 들러
모스크바선 파병 대가 협상할 듯
"북, ICBM·핵잠 기술 이전받을 수도"
김정은, 이르면 연내 방러 가능성

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투입하는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관련 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대규모 민생 분야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 외무상 일행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최 외무상이 29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30일엔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파병된 북한군이 분산돼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도 SNS 계정을 통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대화 활성화에 합의했는데 이번 방러는 이런 전략적 대화의 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의 방러 목적과 관련해 파



최선희 북한 외무상(가운데)이 28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의 환송을 받고 있다. 최 외무상의 방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최 외무상은 29일 파병 북한군이 훈련을 받고 있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30일 모스크바로 갈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병 대가와 관련한 협상이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고위급 채널을 통해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5일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고위급과 최고위급 방문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북한이 결과에 따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불변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양측이 미국 대선 이후 북·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 일

정도 협의할 수 있다"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내년 초 방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관계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4일 방한하는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지혜·박현주 기자

북한 파병 위기 국면 우크라이나와 공조 강화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통화
"실효적 대응... 전략적 협의도 추진"
용산 "살상무기지원 논의단계 아냐"
일각선 "한반도 안보 고려해 신중을"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진행된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협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윤 대통령

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다"며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을 소개하며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뒤 X(옛 트위터)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

이 개입한 데 대해 논의했다"며 "결론은 분명하다. 이 전쟁은 두 나라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전투 지역 근처 러시아 훈련장에 북한군 3000명이 배치됐다는 최근 데이터를 윤 대통령과 공유했으며, 북한군은 약 1만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양자 안보 보장에 관한 주요 7개국(G7) 발뉴스 선언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신제품

-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 GMP 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신제품 세종 후코펫



신제품 NEW

Sejongbiotech, Inc.
Blotach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703-256-7671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주요 성분

-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국정원 “김정은 경호 강화… 파병군 가족엔 훈련간다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와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월 일부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면서 현재 양국 간 교전이 치열한 지역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군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군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 부대 소속 병사를 입단속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의 보고를 전했다. 이어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며 강제 차출에 반발하는 동요도 감지된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정원은 “(참관단이나 심문조) 파견도 국가 안보를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거와 달리 드론전, 전자전 등 현대전으로 진행되는 데 북한군이 파병됐으니 참관단 모니터링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할 경우에도 (참관단이나 심문조)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국정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북한 군인이 한국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받아줘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참관단 심문조”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암살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작년보다 현재까지 110회, 약 60% 증가했고 통신 채팅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달 들어 북한은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 파견 인력에게 선대의 문헌 대신 김정은의 혁명 역사를 재차 강조하는 등 독자 우상화로 김정은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해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등,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있는 사진 공개, 전담 경호원 대동 등으로 볼 때 임지가 확고한 것으로 가늠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목받는 북·러 관계에 대해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국제 제재를 받는 금수품 교역에도 어떤 합의를 했다”며 “대러시아 북한 노동자 송출도 급변 들어 4000여명”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월 800달러로, 파병 군인의 임금은 월 2000달러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국정원은 “나쁜 것이 사실이지만,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근거는 볼 수 없으나 북한이 통보는 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을 드러냈다.

이밖에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정보위 비공개 국감서 보고

“딸 주애 지위격상, 김여정 안내받아서, 북한군에 군용어 100개 교육 중 파병 대응, 한국요원 파견 검토할만”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해 소통 문제가 해결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동향 파악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30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추가 인원을 포함한 파병 규모를 1만9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측은 “파병 군인은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주로 20대 초반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폭풍군단(북

한 파병부대)에서 받아야 할 전투 훈련은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투 능력을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김영복(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한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이는 파병한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 지난 8



조태웅

월 청했다”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군사·경제지원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들이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 무기 이전과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적 군사협력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전략적 협의’와 관련해 “전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취해갈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우리는 정보와 전문 지식 교환을 강화하고 모든 레벨, 특히 최고위층에서 접촉을 강화해 이러한 긴장 고조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전략과 대책을 개발하고, 상호 파트너를 협력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날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 보도

자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안보·인도·재건 분야 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우방국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살상 무기 지원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며 “살상 무기 지원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파병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국 정상 통화에 앞서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 대신 파병 북한군 공격과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확산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서유진·박태인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1분에 끝낸다, 쇼핑·노래·웹툰 '숏폼 전성시대'

시간 대비 효율성 따지는 MZ세대
출퇴근·식사 시간 짬내 문화생활

음악은 1.5배 빨리 듣기로 재생
숏폼 쇼핑시장도 7년새 800배로

자극 커 중독성·과소비는 부작용
일각 '휴대폰 사용 줄이기' 운동도

직장인 박지연(30)씨는 대중교통으로
20분 남짓 걸리는 출근길에 드라마 시
리즈 전편을 훑는다. 약 60분짜리 한
회차를 1분 내의 영상으로 요약한 일
명 '숏드(숏+드라마)'를 여러 개 몰아보
는 식이다. 박씨는 "드라마 전체를 정주
행하러니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며
"16부작 드라마를 1시간으로 압축해
놓은 영상도 1.5배속으로 빨리 돌려 본
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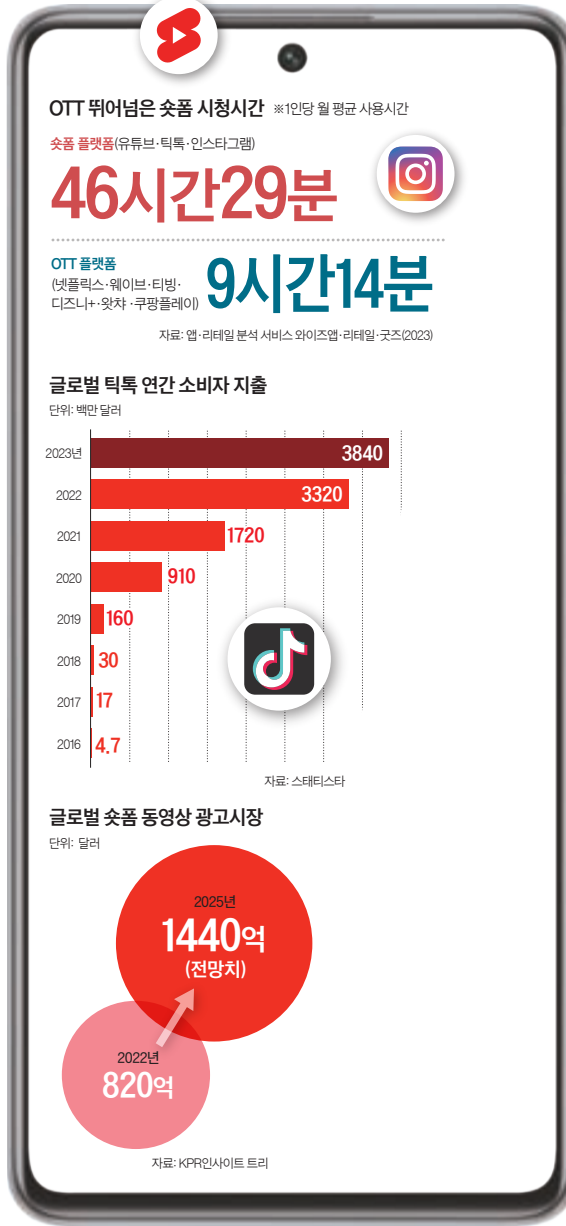
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를 통해 물건을 사는 '숏핑(숏+쇼핑)
'도 즐긴다. 틱톡·유튜브 등에서 숏폼
영상을 보고, 하단의 쇼핑물 링크 탭을
클릭해 구매까지 한번에 하는 식이다.
TV 홈쇼핑 등과 달리 복잡한 설명 없
이 핵심 정보만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면 구매까지 1분도 안 걸린다"고 했다.

1분 이내 짧은 동영상인 숏폼이 MZ
세대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숏OO'식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하고 있다. 숏드·
숏핑·숏툰(숏+웹툰)·숏송(숏+노래)
등 종류도 다양하다.

유튜브에선 지무비(358만
명)·고몽(245만 명)·김시선(194
만 명) 등 영화·드라마 요약 채
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부상
했다. 특정 노래 속도를 1.3~1.5
배 빨리 재생하거나 클라이맥
스 부분만 편집한 '숏송' 콘텐
트도 '스피드 업(Sped Up)'이란
이름으로 유튜브·틱톡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팝에 맞
춰 춤을 따라 추는 챌린지가 유
행하면서 노래 후렴구와 포인
트 안무를 1분 내의 영상에 담는
데 숏송이 자주 쓰이면서다. 아
이돌 그룹 엑소(EXO)가 2013년
발매한 노래 '첫눈'이 지난해 발
매 10년 만에 역주행해 일간 차
트 1위에 오른 것도 스피드 업
댄스 챌린지 덕분이었다.

숏폼에서 쇼핑물 링크를
타고 바로 연결되는 숏핑 시
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틱
톡에선 '#Tiktokmademe
buyit(틱톡 보고 샀)' 해시태그
가 달린 영상 조회 수가 30억 회
이상을 기록하고, 실제 사용 인
증글도 다수 공유된다. 시장조
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6년 470만 달러(약 65억1279
만원) 규모였던 틱톡 기반 글로
벌 소비시장은 지난해 38억4000
만 달러(약 5조3211억원)로 800
배 넘게 성장했다.

이런 현상은 '시성비(시간 대비 성



능·만족감이 좋음)를 추구하는
MZ세대와 시장이 결합한 결과
다. "5분 내의 짧은 콘텐츠를 자
주 틀어 놓는다"는 이모(33)씨
는 "샤워 시간, 식사 시간 등 바
쁜 일과 중에 짬을 내서 문화생
활을 즐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파민(쾌
감·즐거움 등을 느낄 때 분비되
는 호르몬) 중독, 과소비 같은 부
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
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짧은
영상이 넘여가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에 충동구매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스
스로 신중할 소비를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순
간의 도파민에 익숙해져 장시간
집중력은 되려 떨어졌다"며 "플
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중독을 초
래하는 알고리즘 추천을 지양하
는 등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Z세대 사이에서도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X(옛 트위터)' 등 SNS에서
'디지털 디톡스(해독)' 해시태그
(#)를 검색하면 "이틀간 디지털
디톡스를 했더니 몸도 마음도 상쾌해
졌어요" "인터넷,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기 챌린지 성공적으로 진행 중" "요즘
폰 보는 시간이 많아져서 산책 시간을
늘렸다" 등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게시
물 수천 건이 나온다.

스크린 타임 챌린지(하루 동안 스마
트폰 화면을 바라본 시간을 SNS에 알
리면서 점차 시간을 줄이는 도전)도 유
행이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제한해
주는 한 애플리케이션(앱)은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을 넘겼다. "내 삶에서 유
튜브 등 숏폼이 사라진 대신 여가가 생
겼다"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 좋았다"
는 후기가 잇따랐다. 일명 '금욕 상자'
도 등장했다. 휴대전화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열 수 있는 장비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 교수는
"MZ세대에게 디지털 디톡스는 도파
민 중독에 대한 하나의 반(反)트렌드"
라며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본인의 경
험을 알리고 공유하면서 함께 도전하
는데 더 큰 가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김서원·나운재 기자

숏폼=약 1분 미만으로 길이가 짧은
형태의 영상 콘텐츠인 '숏폼'을 활
용한 쇼핑 형태

숏드=드라마 각 회차의 하이라이트만 모
아 편집한 드라마 영상

숏송=기존 노래를 n배속하거나 클라이맥
스 부분만 편집한 노래 영상

이태원참사 2주기 첫 국회 추모... "특조위 지원에 최선"

우원식 의장, 여야 지도부 등 참석
유족 "2차 가해, 정치가 역할 해야"
윤 대통령 "국민들 일상 지키겠다"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이태원 일대와 국회
등 서울시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
다. 여의도 국회 안의 가로등과 가로수
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의 보라
색 목도리가 걸렸다. 이날 오전 11시 국
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모제
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의원 60여 명과 이태원참사 유가족 120
여 명 등이 참석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
난으로 숨진 이들을 위해 추모제를 주
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족과 피해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린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헌화 뒤 희생자
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자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
드린다"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이
어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
별조사위원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
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
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파·정당으로

부터 독립해 업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특조위 경과보고
에서 "그날 밤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
사와 관련해 왜 제대로 대비를 못 했는
지, 참사의 징후를 알고도 왜 적절한 조
치를 하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책

임이 있는지 등 모든 의문점을 철저히
게 밝혀주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무고한 희생
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
사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증거가 차고 넘
친다"며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질 자들이 합당한 책임
을 지게 하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자 살
아남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에 제때 책임을 묻지 않은 것
에 대해 유족과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
영위원장은 "생존자와 목격자들도 사
회의 따가운 시선과 2차 가해로 그 아
픔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
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가 결코 정상
일 수는 없다.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
는 날"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
자들에 대한 진정할 애도"라고 말했다.

이태원 일대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
졌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
전의 길'에선 이날 오후 6시 이태원참사
작가기록단이 '이태원참사 2주기를 기
억하는 행동독서회'를 열었다. 녹사평
역 사거리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시민대
책회의 피해자권리위가 희생자에 대한
추모 편지를 읽는 낭독문화제 '달을 수
있다면'을 진행했다.

박중서 기자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답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703-973-5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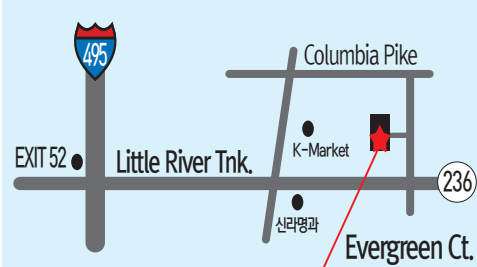
*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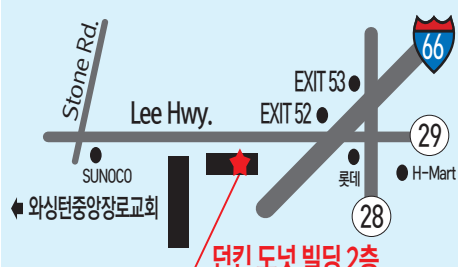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애난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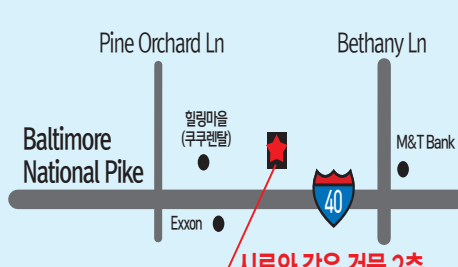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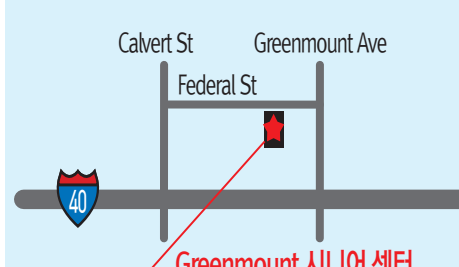
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

볼티모어



425 E Federal St., Baltimore, MD 21202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우리말 바꾸기

‘나지막한’

친구한테 문자가 왔다. “이번 주말에 낮으막한 산에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라는 내용이였다. 위치나 소리가 꽤 낯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처럼 ‘낮으막하다’고 쓰는 사람이 많다. ‘낮다’를 떠올리면서 ‘낮으막하다’로 적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나지막하다’가 맞는 표기다. ‘낮다’의 원형을 생각하면 ‘낮으막하다’가 맞을 것 같지만 ‘나지막하다’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나지막하다’를 ‘나즈막하다’로 쓰는 이도 있다. ‘낮은’의 발음을 따라 ‘나즌→나즈막’과 같이 연상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나지막하다’는 ‘낮다’가 아닌 ‘나직하다’에서 온 말임으로 ‘나지막하다’로 적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말에서 ‘-즈막하다’로 끝나는 단어는 없다. ‘큼지막하다’ ‘높지막하다’ ‘느지막하다’처럼 ‘-지막하다’로 끝나는 단어만 존재한다.

이와 비슷하게 ‘늘그막’을 ‘늘으막’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 ‘늘다’를 활용해 명사형으로 만들 때 ‘늘금’이 아니라 ‘늘음’이라 하는 것처럼 원형을 살려 ‘늘으막’이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한글맞춤법은 어간에 ‘-이, -음’이 아닌 그 외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라 ‘늘그막’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발언대

노벨 문학상 작가의 ‘대리전’ 표현 유감



박동우
OC한국전 참전비 건립위원회 사무총장

비에 새겨진 3만 6000여 명의 이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증거이며, 영원히 빛날 별과 같습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언급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리전’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명백히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며,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은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대리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한국인이 강대국들의 갈등에 희생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며, 미군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학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작가는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은 할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강 작가의 ‘대리전’ 표현은 문학과 역사의 경계를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합니다. 한강 작가의 발언은 우리 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해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대리전’ 표현에 강력히 반대하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풀러튼시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기념비를 방문하여 역사를 배우고,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 선열들의 희생을 헛되이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념비 건립에 작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를 배우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노력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디.

J네트워크

매력과 권력



정강현
워싱턴 특파원

나는 여러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재집권이 아른거리는 현 상황을 ‘호모 픽투스(Homo fictus, 이야기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려 했다.

그 어떤 가치적 판단을 제외하고 말하자면, 트럼프는 해리스에 비해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의 무수한 연설과 인터뷰, 토론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장르로 따지자면 트럼프는 픽션, 해리스는 논픽션 쪽이다.

말하자면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허구를 동원해서라도 지어낸다. 트럼프는 자신을 악인과 맞선 영웅으로 서사화하면

서 대선 캠페인을 드라마처럼 끌고 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악인(불법 이민자)이 등장하고 갈등(일자리와 치안 위기)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는 영웅(트럼프)이 기본 구조를 이루는 식인데, 듣는 이를 현실과 무관한 판타지로 데려가는 효과를 낸다.

반면 해리스는 현실에 기반한 사실을 서술하는 논픽션 강연자 유형이다. 그는 판타지를 지어내는 대신 현실(트럼프의 민주주의 위협)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윤리할지 몰라도 잘 짜인 이야기에 열광하는 ‘호모 픽투스’ 관점에서 그리 매력적인 설득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결국 이야기는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 매력에 관여하는 요소다. 권력이 타인의 복종을 강제하는 힘이라면, 매력은 옳든 그르든 타인이 스스로 다가오게끔 하는 힘이다. 이번 미국 대선은 그 매력의 경중에 따라 초반빙 승부가 결정될지도 모른다. 권력이 매력을 강제할 순 없지만, 매력은 종종 권력 창출의 중요한 발판이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8년 전 탄핵 때와는 다르지만 여사 문제 풀어야 파국 막아”

20%. 지난 25일 Gallup에서 조사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취임 후 최저치다. 박근혜 대통령(당시)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며 탄핵 회오리에 휘말린 시점인 2016년 10월 셋째 주 지지율(25%)보다 낮다. 여권에선 “심리적 탄핵 상태에 돌입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위기의 윤석열 정권은 8년 전 탄핵의 전철을 밟게 될까. 당시 박 대통령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변호인을 맡아 ‘박의 방패’ 역할을 하며 탄핵 전 과정을 몸으로 겪은 유명하 국민의힘 의원(조선·대구 달서갑)을 만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파국을 막을 방안이 펼쳐 물어봤다.

용산 제대로 사과하면 악몽 없을 것

-8년 전 ‘박근혜 탄핵’ 수준의 위기가 현 정권에 닥겠다는 우려가 큰데요.

“당시는 박 대통령이 첫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보여줬다’고 했어요. 실정법 위반 소지를 인정한 거죠. 그 순간 국민은 ‘박근혜 정권만은 부정부패 없으리라 믿었는데 이게 뭐냐’며 실망했죠. 그게 탄핵으로 이어진 원인이죠. 윤 대통령은 그런 수준의 불법 논란은 없었잖아요. 지금은 영부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업고 야당이 근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것이라 경우가 다릅니다. 위기는 맞지만, 성격이 다르고 해법도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하고 명품백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사과문을 내면 어떨까 합니다.”

-용산은 김 여사가 사과했다가 자칫 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사과 요구 공세를 당하는 등 위기가 가중될까 우려하는 듯한데요.

“그때는 박 대통령이 사태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도 주변의 잘못된 건의에 떠밀려 사과문을 내는 바람에 내용이 두리물실해지면서 국민의 의문만 증폭돼 2차·3차 사과를 해야 했던 거예요. 용산은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 여사에 제기한 의혹이 13개나 돼요. 용산은 의혹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뒤 실수로 판정 난사안은 진솔하게 사과하되,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사과가 사과를 부르는 사태를 피할 수 있죠.”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에 연재된 회고록에서 “최순실의 전횡 의혹을 뒤늦게 알고 왜 참모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썼는데요.



검사 출신으로 2005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를 지내온 유명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개시된 2016년 11월 13일부터 변호인을 맡아 ‘박근혜 탄핵’ 전 과정을 지켜보며 방패 역할을 했다. 유 의원은 “요즘 박 전 대통령은 윤 정부의 위기를 걱정하며 어려움을 속히 극복해 국정을 잘 끌어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동 기자

사실과악 없는 추상적 사과가 ‘박근혜 탄핵’ 자초 여사, 잘못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활동 자제해야 ‘학습효과’로 탄핵 공산 낮지만 용산 개혁은 필수

한동훈 대표도 말 아끼고 귀 열며 당정 화합해야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 최측근에겐 참모진의 사정 기능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는데, 최순실씨는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다 보니 편한 사이였죠.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대통령과 18년간 함께한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과 말을 받고, 독일에서 호텔을 샀다는 얘기가 내 귀까지 들어왔는데도 3인방은 대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2016년 9월에 그 소문을 듣고 정호성한테 ‘호성아,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200만 달러 주고 호텔 샀단다. 자기 돈이든 남의 돈이든 큰 문제니 알아봐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업무 폰이라 답 못하냐’ 해서 개인 폰으로도 문자를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그때 3인방은 최순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대중 알았을

듯한데 경고음을 내지 못했다면 책임이 큼니다. 용산 보좌진은 이걸 명심해야 해요.”

-대구·경북(TK) 민심도 ‘여사 문제’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 내외에 여전히 애정이 있지만 ‘여사가 고칠 건 고쳐야 한다’는 게제가 피부로 느끼는 TK 민심입니다. 두 가지예요. ①여사의 노출 빈도가 낮았으면 한다. 나타날 때마다 구설에 오르면 외교 행사만 빼고 본인 홍보하는 느낌 주는 노출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②드러나지 않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못 챙기는 그늘을 묵묵히 돌보면 다 입소문이 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도 2012년 총선 때 군포에 출마하면서 지역 김장 행사에 갔는데 친야 성향 시민단체들이 ‘유명하, 쇼한다. 금방 자리 뜰 거다’고 했지만, 가장 늦게까지 김치를 담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를 담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김 여사가 ‘대통령 전화에 끼어든다’ ‘장관 인사까지 개입한다’는 소문도 나는데요.

“사실이려면 적절한 처신은 아니죠. 여사는 한번 남을 믿으면 속내를 다 드러내는 성격인 듯한데 ‘서울의 소리’ 같은 ‘꾼’들에게 당해봤으니 앞으로 자제하지 않겠어요. 대통령 돕고 싶으면 드러나지 않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게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인데, 육영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회의가 길어지면 ‘말실수할 수 있으니 쉬었다 하세요’란 쪽지를 문틈으로 전했대요. 그런 처신을 참고할 만하죠.”

“밥 넘어가나” 육에 탄핵 고통 실감

-‘김건희 라인’ 비서관들 전횡 논란도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들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맞는 얘기지만, 구체적 혐의를 제시해야지 무조건 쇄신하라는 건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건희 라인) 비서관 2명이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을 흘려 논란을 빚은 건 팩트라는 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벌을 줘야죠. (또 다른 ‘김건희 라인’ 강도 비서관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붙잡아도 ‘누를 끼쳤다’며 나가야 해요. 그게 로열티(충성심)예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4번째로 처리할 방침인데요.

“통과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의 특검법은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3일 뒤 자동 임명되는 걸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에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니 위헌 아닙니까.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때 탄핵이 되는 건데,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결혼하기도 전 얘기니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죠. 국민도 8년 전 탄핵을 경험하면서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봐요.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뽑은 국가원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하는 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8년 전에는 여당(새누리당·122석)이 민주당(123석)과 대등했는데도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175석이고 국민의힘은 108석뿐입니다. 또 지난 4월 3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는 반대가 104표뿐

이라 4표의 반란표가 나온 거로 추정됐죠. 다음 달 14일 민주당은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당에서 반란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진 않나요?

“반란표가 4표라지만 실은 2표라고 합니다. 1표는 기표 오류, 1표는 기권으로 판정돼 무효 처리됐다고 해요. 민주당이 ‘묻지마’식 특검법 투척을 반복할수록 반란표는 오히려 줄 것이라 봅니다. 8년 전엔 반란표가 60표에 달한 끝에 탄핵을 허용했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재선 이상 여당 의원들은 탄핵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해봤기 때문이죠. 당시 여권에서 1000여 명이 조사받고, 200명이 구속됐다고 해요. 또다시 탄핵이 이뤄진다면 더 심하겠죠. 보수의 씨가 마를 겁니다. 8년 전 탄핵 직후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앉은 20대 여성들이 ‘저 새X, 유명하지. 그래도 밥이 입에 들어가나 보네’고 해요. 가슴이 먹먹해 밥을 반도 못 먹고 일어섰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박 대통령 잘못한 건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자. 다만 사실이 아닌 음해성 공세엔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이죠.”

특감 임명해도 문제없어... 수용하길

-그래도 야당의 탄핵 공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막을 방안은요?

“일단 당이 단일대오로 특검과 탄핵 시도를 막은 다음 108명이 의총을 열고 ‘대통령실 개혁안’을 합의해 용산에 전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대통령과 끝장 토론해서라도 개혁을 이뤄내야죠. 대통령의 신념이 옳아도 민심을 우선해야 해요. 정치는 때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TK 민심은 김 여사만이 아니라 한 대표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해요.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부딪혀 결말이 좋은 경우를 못 봤으니 화해해야 한다는 거죠. 한 대표가 제일 아쉬운 게, 말이 앞서요. 대통령과 면담 전에 ‘3대 요구’가 흘러나오면 결과가 좋을 수 있겠어요? (한 대표가 용산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밀어붙이면 안 돼요. 북한 인권재단 인선과 연계한 당론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니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용산이 특감 임명에 부담을 갖는 듯한데요) 임명해도 된다고 봐요.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자제한다면 특감이 가동돼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참고, 상가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누보 하우스 센터빌 오피스)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선착순 20명)

 황계실 브로커 내집 동네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최저 비용, 최대 효과) 2025 집 값 어떻게 될까? 내집 인제, 어떻게 사야할까?	 신디양 StateFarm 대표 사고와 클레임이 증가하는 요즘, 내 집 보험 점검 필수	 데오일유 내집 지붕 진단 및 라이선스 소유 업체 선정해야 하는 이유 / 방법	 이성호 Eruda Design & Build Inc (Class "A License) 대표 겨울철 내집 관리 요령
---	--	---	---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위스타인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 #310, Annandale, VA 22003

시 설

어처구니없는 이재명 대표의 북한군 파병 관련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 발언들은 대한민국 제1당 대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이 대표는 먼저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 국정원에서 북한군 전쟁포로를 심문하기 위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 하는데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북·러가 이제 동맹을 넘어 혈맹이 됐다는 건 앞으로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파병하게 됐음을 뜻한다. 게다가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전수, 무기 제조 공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친다. 이 대표처럼 ‘남의 전쟁’ 운운하며 강 건너 불 구경할 일이 결코 아니다. 총선 전 “(중국에도) 세세, 대만에도 세세 이러면 되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국회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혔을 것이라 믿었는데, 영 노력 없이 모방이다.

국정원의 심문조 파견을 둘러싼 이 대표의 인식도 충격적이다. 지금 세계는 정보전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주요국 정보기관들은 외부에서 전쟁이냐면 정보를 얻기 위해 앞다퉀 심문조를 파견한다. 동맹이나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일종의 협조 책임으로도 본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적대국인 북한의 군대가 러시아 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실전 운용 실태를 파악해야 한

다. 한반도 유사시 대비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터에, 제1 야당 당수가 ‘고문 기술 전수’ 같은 황당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국격 훼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누가 주요 7개국(G7) 추가 진입을 노리는 국가의 정치지도자 발언으로 보겠는가.

또 이 대표는 “주술사가 닭 목 베고 피맛을 보며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모든 걸 김건희 여사 관련으로 몰아붙인다 해도 이견도 한참 넘어선 발언이다. 나아가 친이재명 강성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어제 성명에서 밝힌 “(북한군) 파병이 아니라 (북·러) 합동군사훈련

아니냐”는 발언 역시 어처구니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감청 파일로 파병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려 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민주당은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자 어제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표했다. 의도야 어쨌든 이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북한 비판보다는 한국 정부 비판에 방점이 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 문제를 이렇듯 국내 정치의 도구로 동원하는 모습은 불쌍스럽다. 이 대표의 잘못된 인식이 누적되면 국민은 이제 그의 지도자 자질 부족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가 안위 위협하는데 어찌 ‘남의 나라 전쟁’인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라니... 외교안보 식견 극히 의문

대학 자율에 맡긴 의대생 휴학, 대화 재개 실마리 되길

정부가 길게는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의대 교육의 파행이 계속될 것이라 현실적 고민의 결과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방침 변경을 환영하면서 내년 의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약속하지 않는 의대생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유급이나 제적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은 결과적으로 의대생 복귀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다. 의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의사를 길러내는 것이라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해 달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입장을 전환한 건 다행스럽다. 그동안 정부는 ‘동맹휴학은 불가’라는 원칙에서 의대생 휴학계 승인에 막아왔지만 전국 의대의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쳤다. 결국 올해는 의대 수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수업을 오전·오후로 쪼개고 겨울방학도 반납하는 식으로 수업 시수를 채울 수 있다고 했지만 탁상공론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심지어 F학점(낙제)을 받아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겠다는 비현실적인 발상까지 내놓기도 했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의 걸림돌을 제거했으니 이제 각 대학과 의료계는 내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협력할 때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대한의학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의 일부로도 내걸었던 사항이다. 이번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의료계도 대화의 테이블에 참여하길 바란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을 베풀 끝으로 내모는 자존심 싸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야·의·정 협의체도, 다른 방식이든 하루빨리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의대생 추첨에서 한강을 떠올리다

김승현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다고?”

후배 기자들이 해외에서 취재한 기획 기사 초고를 보며 눈을 의심했다. 한국의 의대 입시에선 상상하기 힘든 입시제도 때문이었다. 네덜란드 명문 에라스무스 의대는 올해 400명 신입생 중 1~200등은 성적순으로, 나머지는 35%의 임의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뽑았다. 65%의 성적이 반영되니 완전 추첨제는 아니어도 임의점수(35%)가 추첨의 효과를 냈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나빠도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능력주의 선발에 대한 ‘견제장치’였다.

세계의 ‘닥터 로드’는 외길이 아니다. 해외 선진국도 의사가 선망의 직업임에도 한국과 달리 진입장벽이 아닌 진입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로테르담에서 후배 기자가 만난 입시 담당 교수의 설명은 이랬다. “성적이 좋은 ‘과잉 성과자’만 의대에 모이면 특정 학과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똑똑한 순서로 의사가 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칙이 제도를 바꾸고 있다. ‘실용(實用)의 나라’ 네덜란드는 주류 의사만 있을 경우 비주류 환자가 소외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었다. 에라스무스 의대 교육 부학장 마틴 프렌즈 교수는 “매우 복잡한 학문과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일부이고, 대부분은 사회에 참여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관리자에 가깝다”며 추첨제의 효능을 설명했다.

한국 의료 소비자의 마음에 와닿는 진단이다. 하지만 능력과 돈이 우선이 되어 버린 우리 의료 생태계에선 ‘투자의 변명’처럼 들릴 것 같다. 그곳에선 추첨제 의대생이 패배자로 치부되지 않았다. 해당 의대 역시 한국 최고 수준 의대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오카와에 있는 류큐대의 ‘낙도 지역정원제 전형’은 주민 수가 300명이 되지 않은 외딴섬에도 주치의가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의대 졸업 후 9년 정도 의무적으로 섬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인데 디테일이 살아 있다. 류큐대 의대 신입생 110명 중 15명 정도가 지역정원

제 출신인데, 이들은 외딴섬에 1~2주씩 현장 실습을 가고 아동들에게는 의료·교육 봉사를 하며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 전문가로도 성장한다. 대학 부속 병원장은 “선의를 믿음만으로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금지와 확실한 보상, 그리고 페널티가 적절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의술을 넘어 인술을 구현하는 의료 체계를 갖추는 건 세계 어디서나 머리 싸매고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네덜란드에서도 “추첨제보다 능력주의 선발이 낫다”는 반론이 있어 제도 폐지와 제도입이 반복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는 응급 구조원 경력을 의대생 선발에 가산점으로 활용하고 환자가 의대 강의에 참여하는 제도 등을 개발한다.

한 사회가 의료인에게 기대하는 ‘선의

응급실과 시골의 의사 부족은 능력·돈 우선 사회의 역기능 인간의 연대감이 해결 실마리

와 믿음’은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 촘촘한 제도로 만들어진다. 걸 세계의 다채로운 닥터 로드들은 보여준다. 의대생 숫자에도 합의점을 못 찾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동조차 안 되는 한국의 처지가 참담하긴 해도, 우리 역시 인류사적 고민을 함께하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과 생각이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뚱맞은 생각을 해 본다. 노벨상 수상 1년여 전, 한강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 여만 출간을 기념해 파리를 방문해 이런 말을 했다.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쓴다는 건 단지 과거의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 43사건을 모르는 프랑스 독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해외 선진국의 독특한 닥터 로드 또한 인간 본성을 탐구한 결과물하기에 공감이 되는 것이라. “인간은 서로 연결돼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한강 작가의 슬프고도 집요한 믿음을 이참에 여·야·의·정 모두 음미해 봤으면 한다.

사회디렉터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주)세창이력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갭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October 30,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척추관협착증에 당뇨 있다면, 스테로이드 사용 자제해야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다. 많은 사람이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며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러닝 크루도 유행하고 있으며, 여기도 불꽃 축제나 단풍 축제와 같은 야외 행사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일부 시니어들에겐 이 같은 외부 활동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실제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인구는 약 777만명으로 4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08년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고령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 질환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허리통증·다리저림...오래 서 있기 힘들어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에 위치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노화로 인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 이를 지탱하는 구조물들이 비대해져 신경을 누르고,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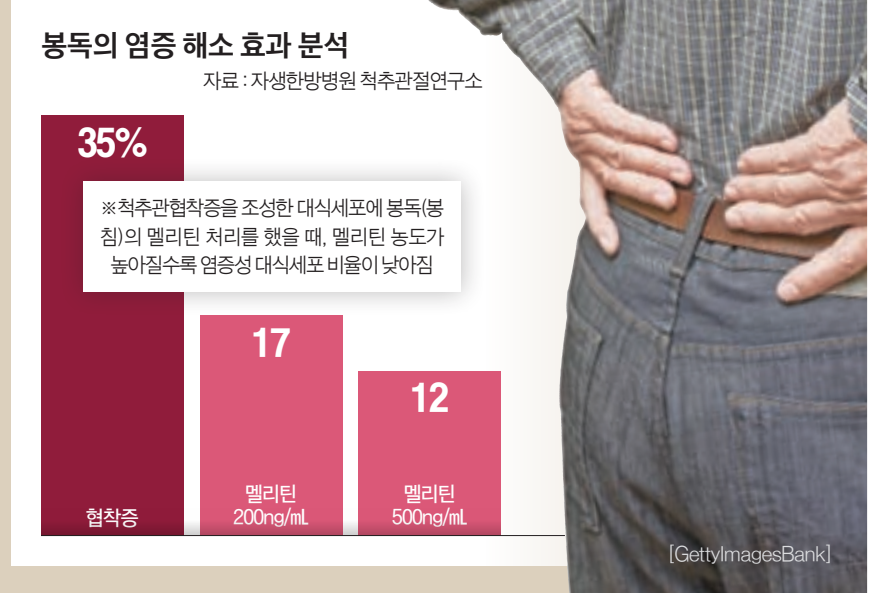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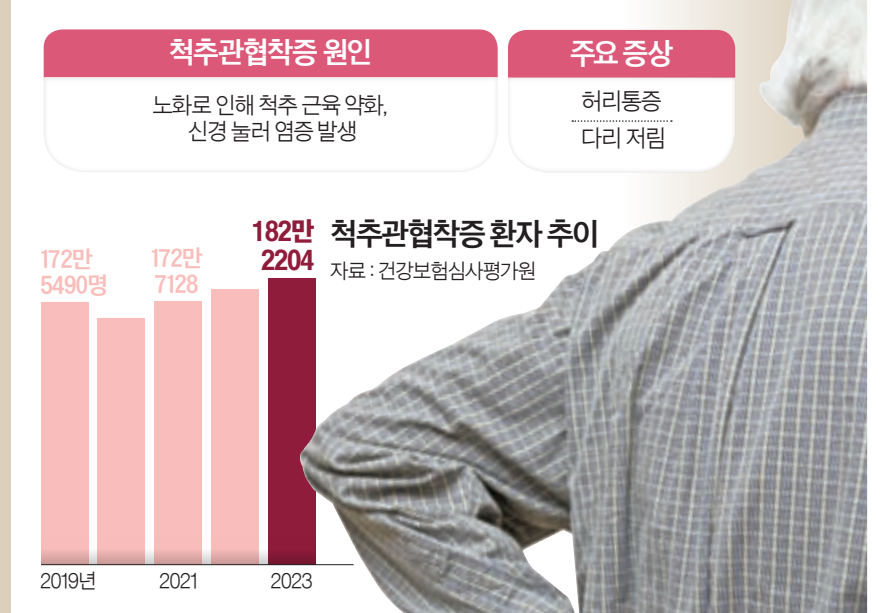
주요 증상은 허리 통증을 비롯한 다리 저림 등이다. 걷거나 오래 서 있기가 힘들고, 통증을 피하려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잠시 완화되기도 한다. 허리를 굽히면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져 신경 압박이 줄어드는 탓이다. 하지만 통증을 피하려고 허리를 계속 굽히고 다니다 보면 결국 '꼬부랑 허리'가 될 위험이 크다.

심해질 경우 다리가 터질 듯 저리거나, 몇 분 걷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태로 악화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꼭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아니다.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

통증 줄이려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혈당 올릴 수 있어 당뇨환자 조심

봉침, 추나 등 한의학 치료 예후 좋아 봉침 주성분 멜리틴, 면역증강 효과



제 SCI(E)급 국제학술지인 '영국 신경외과학 저널(British Journal of Neurosurgery)'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척추관협착증 환자 68명 중 22명만이 수술을 선택했고, 2년간 추적 관찰 결과 30명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회복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는 장기 사용 시

내분비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 위험하다.

흔히 처방되는 스테로이드는 콩팥 위 부신 겉질에서 생산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다. 몸이 받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지방과 단백질

을 분해하는 물론,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낸다. 이에 혈당이 올라가며 스트레스에 신체가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당뇨병 환자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처방될 경우 혈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영현 일산자생한방병원 원장

▶ 4면 '스테로이드'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The Centers for Advanced Orthopaedics
The Orthopaedic Foot & Ankle Center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당뇨병 발 관리	당뇨 신발	기능성 발 보조기
	발 및 발목 골절	상처 치료 <td>족저근막염</td>	족저근막염
	망치 발가락	건막류	사마귀 및 궤양
			관절염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예약 문의 **703.394.4818**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dc.com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심혈관 질환 숨은 원인 스트레스, 사건은 거리 두고 감사·선행은 가까이

스트레스 대처법

영화 '조커'와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들은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스트레스다. 두 주인공 모두 스트레스 척도(홀츠-라헤사회 재적응 척도)에서 150점을 훌쩍 넘어 건강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 척도는 지난 1년간 겪은 사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스트레스 강도를 평가한다.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높은 100점이다. 이혼(73점), 불화(65점), 중대한 법적 문제(63점), 가족의 죽음(63점), 질병(53) 순으로 점수가 높다. 결혼(50점), 새 직장(36점)과 같이 긍정적인 사건도 포함된다.

스트레스 총합이 150점을 넘으면 2년 내 심혈관 질환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37%, 300점을 넘으면 79%로 치솟는다. 운동, 명상, 화초 가꾸기 등 신체·정신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조커의 주인공 아서 플렉은 실직, 어머니의 죽음, 법적 문제에 얽히며 점차 폭력적으로 변한다. 사회에 반감을 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반면에 포레스트는 어머니와 여자친구 제니의 죽음으로 크게 상심하지만 달리기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흔히 비만,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을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의 뇌관이 스트레스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심장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급격한 기온 변화는 심근경색의 뇌관이 된다. 일부만 막혀 있던 혈관도 갑자기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심장이 견디



출처: GettyImagesBank

지 못해 수분 안에 돌연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담을 넘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킨다. 동맥경화와 심장병·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담배, 술, 폭식으로 풀려는 경향이 있다.

건강할수록 심박 변이도 높아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생체 신호의 하나는 '심박 변이도'다. 심장 박동 간의 변화인데 건강할수록 변이도는 높다. 심장이 다양한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안정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완 상태에 반응하는 부교감신경이 잘 활성화돼서 그렇다. 일반 성인의 심박 변이도는 19~75밀리

초(1ms=1000분의 1초)다.

반면에 낮은 심박 변이도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다. 심장에 부담이 크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심박 변이도는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 스마트링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당사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로 195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한스 셀리에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세를 강조한 말이다. 판단력과 감정 조절 등을 주관하는 전두엽에서 '대수롭지 않고 견딜 만하다'고 인식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약하다. '통제할 수 없고 낮은 상황'으로 인식하면 강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인생의 여러 요소에 통제 욕구가 강한 완벽주의적 성향이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기 쉽다. 돌발 변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상황을 수정하려고 골몰하다가 스트레스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심리적 훈련은 스트레스 반응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사건·상황에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연습이다. 스트레스받는 사건을 평가하거나 예견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내 인생 전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바라보고, 결국 지나갈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심

신이 소진해 있으면 현재 경험하는 상황이 극도로 증폭된다. 인생 전반이 온통 해당 사건과 감정으로 채워진다는 심리적 착시를 가져온다.

친절함·선행도 심장 건강 도움

둘째로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마음챙김 기술이다. 이완 기법을 연습하면 스트레스 반응에 대처하는 능력을 단련시켜 준다.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심박 변이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감사·행복 같은 충만한 감정도 그렇다. 기분이 좋았거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상황, 당시 내 생각과 행동을 글로 적어봐도 좋다.

셋째는 사회적 연결망이다. 사람과의 연결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더 나은 대처 방안을 찾는 능력이 강화된다. 고립에 따른 만성적인 외로움 상태를 뚫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본다. 실패를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자책하게 돼 심리적 장벽이 생긴다. 주변 사람에게 대화를 걸고 도움을 요청하길 망설이지 않는 게 좋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선행을 베푸는 것도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타적 행동에서 오는 정서적 포만감이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란 용어가 있다.

찬 바람이 불 땀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급격한 기온 변화를 조심해야 한다. 아침에 잠옷 바람으로 신문·택배를 가지러 나가는 행동도 심장엔 부담이다.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강하게 수축한다. 두꺼운 옷 한 겹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새벽·아침에 야외 운동과 산행은 자제하는 게 좋다.

이민영 기자

병원리포트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김민석 교수팀

실명 유발하는 당뇨망막병증, 검진율 30% 밀돌아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경우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율은 채 30%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새거나 부종이 발생하는 등 눈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 넘는 만큼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김민석 교수팀은 국내 당뇨망막병증 검진율의 최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 3717명 중 29.5%(1109명)만이 최근 1년



내 당뇨망막병증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망막 검진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는 거주 지역, 연령, 교육 수준 등이 꼽혔는데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80세 이상의 고령층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검진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생활습관 개선 없는 경우 검진율 낮아 건강에 대한 무관심, 안일함과 관련된 요인들 또한 연관돼 있었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평가하거나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 환자들이 당뇨망막병증 검진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흡연을 하거나 운동, 식이요법 없이 약물치료로만 당뇨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보고한 국내 당뇨망막병증 검진율인 29.5%는 과거 실시한 국내 조사 데이터의 37%(2005, 2007~2009년 국민건강영

양조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개입과 홍보 등 다각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민석 교수는 "당뇨망막병증은 병이 심해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받아야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의학회 공식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에 게재됐다.

류정훈 기자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한의사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마침 운동할 걸로써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식당밥 자주 먹는 현대인 튀김·볶음류 피하고 채소류 챙겨 먹어야

만성질환 막는 외식 가이드 현대사회에서 집밥만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식당에 가거나 포장해 오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간편식을 사다 먹는 건 이제 일상이다. 문제는 건강관리다. 완제품을 사서 먹으면 직접 조리하지 않아 식재료를 모두 확인할 수 없고 간·맛을 뜻대로 내기 어렵다. 혈압·혈당·지질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고민거리다. 특히 수치가 정상과 질병의 경계선에 있다면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첫걸음은 식이요법이다. 바깥 음식을 먹더라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고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김선영 기자

혈당 조절 필요할 때
당뇨병이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액 내에 포도당이 정상보다 높아져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이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팩트시트'(2024)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533만 명이다. 또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 수치가 정상인보단 높은 경우다. 질병으로 악화하는 걸 막으려면 식사할 때 일정한 원칙을 따르는 게 좋다.

원칙의 기본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먹고 적정 시간에 먹음으로써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이때 몇 가지 기억하면 도움된다. 첫째, 단순당 식품 섭취를 조절한다.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으로 소화·흡수가 빨라 혈당 상승을 촉진한다.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줄이고 복합당 위주의 식품을 먹는다. 둘째,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먹는다. 펙틴·알긴산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혈당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셋째, 술은 영양소가 전혀 없고 열량만 많이 내므로 되도록 피한다.

외식 메뉴가 고민일 땐 다양한 식품이 포함된 영양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한식·일식이 좋다. 튀김·볶음류 위주의 양식과 중식은 자주 먹지 않도록 한다. 한식·일식 중에서도 채소 조림, 조무침처럼 밑반찬이 곁들여져 채소류를 많이 섭취할 수 있거나 곡류·어육류·채소류가 배합된 음식이 좋다. 짜고 자극적인 메뉴는 보상 심리로 당류를 섭취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뜨려 혈당을 올리는 유인책이 될 수 있으니 염분을 많이 함유한 국·찌개보다 조리 후 지방을 제거한 싱거운 국물류가 추천된다.

요즘 당류 섭취량을 늘리는 주범은 음료수다. 식사 도중이나 후에 마실 음료에 신경 써야 한다. 단맛 나는 커피나 콜라, 코코아 같은 음료보다 당분을 이용하지 않은 녹차·동글레차·보리차가 낫다. 갈증 해소를 돕는 음료도 주의 대상이다. 대전 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홍준화 교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온음료, 스포츠음료 같은 음료수는 고혈당으로 소변 배출이 많아져 탈수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한 캔당 60~80kcal의 열량이 들어 있어 혈당 조절을 방해하기 쉽다.

지질 상태 걱정될 때
혈액 내에 중성지방·콜레스테롤 등 지질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이가 많다. 지질 수치를 높이는 원인의 하나는 고지방 식사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지방 에너지 하루 섭취율이 2011년 19.2%에서 2020년 24.1%로, 포화지방산 하루 섭취율은 2013년 6%



에서 2020년 7.8%로 느는 추세다. 포화지방산의 경우 총 에너지 섭취의 7% 미만인 권고되나 이미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

지방은 열량이 높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기 쉽고 혈액 내 지질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를 살펴야 한다. 불포화지방산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지질 수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생선 메뉴를 권장하는 이유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오메가3 지방산인 EPA·DHA가 풍부하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 발생을 방지하며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외식한다면 고등어·꽂치·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기름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석쇠를 이용한 구이나 찜, 전골 식으로 조리한 메뉴를 택하면 좋다.



또한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물성 지방을 즐긴다. 밖에서 돼지고기·소고기·양고기·닭고기 등을 먹을 땐 지방을 가위로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 살코기 위주로 먹는다. 요즘 식물성 지방 가운데 젊은 층 입맛까지 사로잡은 건 들기름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된다. 요즘 식당엔 식재료와 조리법, 소스 종류 등 레시피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메뉴판이 많아졌다. 샐러드나 무침 요리에 들기름을 활용한 메뉴를 고르자. 만들어 놓은 식품을 고를 땐 영양 성분 표시를 우선 확인한다. 가급적 1회 제공 분량당 전체 지방량이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한다.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은 1회 제공 분량당 3g 이하, 식이섬유소의 경우 1회 섭취 시 5g 정도 되는 제품이 좋다. 지질 수치가 나쁜 상태라면 1회 제공 분량당 총 탄수화물 30g 이하, 당류 15g 이하를 권한다.

혈압 수치 낮추고 싶을 때

혈압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면 정상인 사람보다 고혈압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고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 역시 커진다. 지난 6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지에 실린 국내 30~40대 젊은 층에서 발생한 뇌출혈의 요인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고혈압과 관련성이 높았다. 연구를 진행한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박용숙 교수는 "MRI로 뇌 실질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던 39명을 봤을 때 50% 이상의 환자에서 뇌출혈 발병 전에 이미 뇌 변성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뇌 변성은 고혈압과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혈압을 정상화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혈압 강하 효과와 함께 다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된다. 외식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염분이다. 혈액 내 소금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을 체내에 많이 보유하게 돼 혈압이 높아진다. 한국인의 주요 나트륨 급원 식품은 배추김치·간장·된장·라면이다. 보통 면·국·탕·찌개·전골 같은 음식으로부터 전체 나트륨의 60% 이상을 섭취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메뉴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외식이 불가능하다. 외

식을 하루 한 끼로 제한하는 식으로 외식 빈도를 최대한 낮추는 수밖에 없다.

식당에 간다면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집'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모든 메뉴의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300mg 미만이거나 전체 메뉴 5분의 1 이상의 나트륨 함량을 기존 대비 30% 이상 줄인 음식점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000여 곳(2022년 3월 기준)을 지정한 바 있다. 음식점 입구에 지정 현판을 확인하거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사 메뉴로는 짬뽕과 우동, 열무 냉면, 뼈다귀해장국, 짜장면, 만둣국, 해물 칼국수가 꼽히므로 참고한다. 반찬에도 간이 돼 있으므로 먹다 보면 나트륨 총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한식을 먹을 땐 반찬이 많이 나오는 메뉴보단 단품류가 낫다.

어쩔 수 없이 국이나 탕, 찌개, 전골류를 먹을 땐 작은 그릇을 사용해 덜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포장 음식을 주문할 땐 양념을 따로 요청해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참고 자료=『질환 관리를 위한 바른 식생활 가이드』(보건복지부), [출처: GettyImagesBank]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불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원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고려대 의대, 세계 최고 명문들과 손잡으며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 새 지평”

인터뷰 편성범 고려대 의과대학장 의학 교육은 미래 의학의 주춧돌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미래 의학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우수 대학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예일대와 추진한 학생 교류 협력이 혁신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편성범 고려대 의과대학장을 만나 미래 의학 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신영경 기자

“해외 대학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뤄지나.”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와 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학생들에게 선진 의학 교육 시스템과 임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의학과 4학년 전공 탐색 기간과 선택 임상 실습 기간에 존스홉킨스 의대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습할 수 있다. 예일대와는 박사 학위 진학 과정을 교류한다.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 의대 졸업(예정)자에게 임상 의사과학자와 기초 의과학자 프로그램 두 과정의 진학 기회를 제공한다. 예일대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학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점이 남다르다. 향후 학부부터 박사까지 예일대에서 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학생 교류 협정도 논의 중이다.”

“이번 교류 협정이 갖는 의미는 뭔가.”

“유의미한 연구의 시작점이 된다.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대에서 실습하며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그동안 고려대 의대가 교육·연구 역량이 뛰어난 데 비해 대외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교류 협정을 통해 고려대 의대가 해외 대학의 우수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발판 삼아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등 해외 선진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것도 과제다.”



편성범 고려대 의과대학장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에 앞장서면서 의대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28년까지 세계 30대 의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의대 학생들이 현장에 없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 큰 책임을 느낀다. 그럼에도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의학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나아가 한다.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결국 학교 분위기가 바뀌고 정확한 메시지가 전해지면 학생들이 잘 따라

와 줄 것이라고 믿는다. 훌륭한 의과학자를 배출해 국내 1호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고대 의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연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나.”

“리서치 넥서스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해외 석학을 초청해 세미나를 연다. 신경 발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버드대 의사과학자 제프리 매클리스 교수를 비롯해 예일대 학장을 지낸

마빈 천 교수, 200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노팅엄대 도로시 아우어 교수 등 해외 저명 석학 9명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최신 연구 동향을 나눴다. 지난 2일에는 예일대와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통한 헬스케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큰 관심을 받았다. 교원을 위한 특별 교환교수 프로그램도 있다. 2019년 UCI(캘리포니아대 어바인)와 특별 교환교수 협약을 맺었다. 파견된 교수는

학교 간 교류 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까지 총 5명의 교수가 파견돼 의학 교육·연구 분야 선진화에 기여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나.”

“전주기 의과학자 양성의 첫걸음으로 학생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학부 때부터 자발적으로 연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다. 학생연구회는 60편 이상의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성과를 이뤘다. 2018년부터 국내 의대 중 유일하게 세계 각국 의대생이 참여하는 국제 호의학술제를 개최하고 있고, 고려대 의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6년제 통합 교육과정도 준비 중이다. 기초·임상 간 과정을 강화하고,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 특성화 과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2028년엔 의대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세계 30대 의과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제1의학관을 개관했고, 최근에는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 정몽구관을 증축·리모델링했다. 고려대의 호상비문에는 ‘지속을 박차고 포효하라’는 문구가 있다. 본질적으로 고려대 의대가 가진 글로벌 정신을 잘 표현해주는 대목 같다. 고려대 의대 100년이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는 의과대학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 1면 ‘스테로이드’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진통제 사용은 자칫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평균 4.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보유자 중 70.9%가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척추관협착증 환자들, 특히 고령층 환자들은 신중하게 치료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한의 치료가 좋은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SCI(E)급 국제학술지 ‘의학(Medicine)’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협착증 연구소가 게재한 연구를 보

면, 한방병원 등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10년 새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국내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걸 고려하면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침·약침·봉침, 한약, 추나요법(한의사가 환자의 틀어진 뼈와 근육을 밀고 당기는 요법) 등의 다양한 치료를 환자의 특성에 맞춰 실시한다. 전인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보존치료 특성상 부작용이 거의 없고 예후가 좋다. 한의 치료 효과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봉침의 척추관협착증 치료 기전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한 의 찾은 척추관협착증 환자 10년 새 8배 봉침 치료에 사용되는 봉독은 멜리틴(Mellitin)이 주성분이다. 봉독 전체 중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멜리틴은 근골격계 진통, 면역 증강 등에 효과가 있다. 자생한방병원 연구팀은 멜리틴이 척추관협착증의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과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 ‘생물의학 및 약물치료(Biomedicine & Pharmacotherapy)’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 실험 쥐를 사용해 진행됐다. 연구결과, 멜리틴이 염증성 대식세포(M1)를 줄이고 항염증성 대식세포(M2)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운동 능력 개선 실험에서도 멜리틴을 투여

한 쥐의 뒷발 사용량이 증가하고 통증 반응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도 도출됐다.

전문적인 치료 외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척추관협착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척추관협착증을 예방하려면 근육의 퇴행을 늦추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다. 특히 걷기 운동은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신경 압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통증이 발생할 만큼 무리해서 걷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컨디션이 좋은 날 무리해 걷다가 오히려 척추의 퇴행을 재촉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하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신체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근

육과 인대를 수축시키는데, 이로 인해 척추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작은 충격에도 부상 위험이 커지며 특히 허리 통증을 겪는 사람이라면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두꺼운 옷을 한 벌 입기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보온에 효과적이다. 따뜻한 차를 마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척추 건강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한 척추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듯, 꾸준한 관리와 치료는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배영원 일산자생한방병원 원장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건강 칼럼

69세 여성환자가 손과 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환자가 말하는 “저리다”는 증상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환자가 말하는 저리다는 증상의 대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을 때 마비되는 것 같은 감각을 말하고 있었다. 또한 가끔 손발에 전기가 순간 통하는 것 같은 느낌 및 발바닥이 불난 것같이 화닥거려거나 뜨거운 이상 감각도 들어 있었다.

환자는 60대 초반부터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저리는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다. 환자는 특히 왼손과 왼족발의 손끝과 발끝에서 동시에 저리기 시작하

여 최근 들어서는 저리는 감각과 동시에 콧속 찌르는 통증도 호소하였다. 환자는 고혈압, 고지혈증(콜레스테롤) 및 당뇨를 오랜기간 앓아 왔으며 과거 뇌졸중도 가볍게 한번 온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본 환자의 손발저림의 경우 일반에게 증풍으로 알려져 있는 뇌혈관 질환을 먼저 의심할 수 있었다. 증풍하면 흔히들 반신불수, 반신마비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야말로 매우 흔히 손발저림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 중의 하나이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의학적으로 뇌졸중이란, 뇌혈관

손발저림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정확히는 뇌조직 또는 뇌 신경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 또는 작은 소

동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막히거나 터짐으로서, 일정시간 동안 뇌 세포나 뇌조직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여 신경세포가 죽게되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경우를 뇌경색,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경우를 뇌출혈이라 부르는데, 어떤 위치의 뇌조직이 손상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중의 하나가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침범될 경우 생기는 이상 감각 증상이다.

흔히들 손발이 저리다는 증상은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대부분 “혈액

순환”이 안되어서 그런다고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의학적 사실과 매우 다르다. 손발을 포함 사지가 저리는 증상의 대부분은 신경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버거씨병이나 레이노드병과 같은 소수의 특이한 혈관계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손발이 저린 증상의 90% 이상은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필자를 찾아온 이 여성 환자의 경우 오른쪽 뇌의 시상이라는 부위에 뇌졸중이 와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즉각적인 신경내과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효과적인 조절이 가능할 수 있었다.

>상담 문의: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시니어

평생 학습자나 새 취미 찾는 사람에게 좋아

챗GPT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지난해부터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챗GPT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답변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붓을 강화시켰다. 그런데 시니어들에게도 무슨 도움이 될까. 챗GPT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학기술 발전의 한 과정이다. 알아서 손해 날 것이 없지만 모르면 자칫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건강, 금융, 기술 등 질문 가능
무료 사용 가능해 부담도 없어
'의료용 AI도우미' 로 활용할만**

1. 챗GPT란 무엇인가
챗GPT의 GPT 부분은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의미한다. 챗GPT는 평범한 영어로(혹은 한글로) 마치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이다. 수년간의 개발 끝에 챗GPT를 출시한 OpenAI는 인터넷에서 인간이 생성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붓을 훈련시켰다. 대화에 최적화되어 있고 앞서 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챗GPT는 대부분 텍스트 기반이며 컴퓨터에 입력을 통해서 사용한다. 현재 독립 실행형 모바일 버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OpenAI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새 버전인 GPT-4가 '멀티모달' AI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키 입력을 넘어 이미지를 분

석하고 이에 따라 텍스트를 통해 응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어떻게 시작하나
크롬 주소창에 chat.openai.com로 타이핑 하면 된다. 신용카드 없이 이메일 주소로 등록된다. 서버 과부하로 인해 즉시 액세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요가 많을 때에도 더 빠른 응답 시간과 액세스를 약속하는 유료 버전인 챗GPT Plus도 출시했다. 월 20달러.

3. ChatGPT는 50세 이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해 챗ChatGPT에 물어봤다. 챗GPT는 건강, 금융, 기술, 시사 등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시니어들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챗GPT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동반자로 역할한다. 많은 시니어들은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챗GPT는 대화에 참여하고 질문에 응답하여 동료애를 제공하여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정신적 자극을 제공한다. 챗GPT와의 대화에 참여하면 뇌 건강에 필수적인 정신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시니어들이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인지 능력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챗GPT는 시니어들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와 경험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치료적일 수 있으며 그들이 듣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활동 및 취미를 제안한다. 챗GPT는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 및 취미를 제안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누구나 '결혼 25주년을 축하하는 방법', '은퇴 파티를 준비하는 방법', '블록체인 기술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방법', '재정 관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를 준비하는 방법' 또는 '유가 계획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챗GPT에게 물어볼 수 있다.

챗GPT는 평생 학습자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웹 페이지를 구축하고, 통계 계산을 실행하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한 컴퓨터 코드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잃어버린 수학 능력을 강화하고 아이들이나 손자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과 관련하여 챗GPT 및 기타 AI 붓은 결국 더 발전할 수 있다. 셀폰은 공유하고자 하는 의료 기록을 읽고, 임상과의 대화를 듣고, 특정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건강 매뉴얼에서 학습하고, 팔로업을 요청하는 '의료용 AI 도우미'가 될 수 있다.

4. 챗GPT는 비공개인가

현재는 아니다. OpenAI 트레이너는 표면적으로 챗GPT를 개선하기 위해 입력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사용자는 대화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챗GPT는 처음에 인터넷 텍스트의 300억 단어로 훈련되었기 때

문에 온라인에서 스토리에 댓글을 달거나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붓이 이미 당신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 과 마찬가지로 챗GPT는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기록한다.

5. 다른 사람들도 AI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

물론이다.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음악 재생 목록 추천을 받는 등 이미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도구로서 AI는 전통적인 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완하거나 나올 수 있다.

6. 챗GPT의 단점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OpenAI는 챗GPT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와 편파적이거나 공격적인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인터넷에서 접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가 부족하여 한글 및 한국문화 관련된 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영어로 된 정보를 한글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는 2021년 이후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

7. AI는 사악한 면도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은 챗GPT를 비롯한 AI의 발전으로 잠재적인 일자리 상실, 부정확성, 허위 정보의 확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보고 읽는 모든 것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제 인간이 아닌 AI가 밀리초 안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I 덕분에 사기꾼은 더 이상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는 그럴듯한 편지를 만들어 사기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

8.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있나

아마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설명하는 진짜는 사람이 쓴 것을 말한다. 챗GPT가 쓴 것은 가짜 사람이 쓴 것이다. 현재는 챗GPT의 작품인지 찾아보는 것이 나중에 비해서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챗GPT가 생성한 문장과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세련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AI를 이용한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일반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편지자나 교사처럼 읽고, 일반적인 진술 또는 너무 단순화되고 요약된 내용이 많이 보인다면 주의해야 한다.

9. GPT-4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나

OpenAI에 따르면 새 버전인 GPT-4는 더 높은 정확도로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Bing 외에도 수많은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10. 챗GPT로 재미있게 놀 수는 없나

챗GPT를 사용하여 노는 것은 재미있다. 이상한 것을 시도해 보면 알 수 있다. 호머 심슨이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기억에 남는 영화 인용문 목록을 요청해보라. 결국 챗GPT는 일반 시니어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미있는 새로운 문물로는 제격이다. 챗GPT 화면에 가면 아주 다양한 기술이 제공된다. 카피 라이팅, 마케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를 생성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 대본을 써주거나, 블로그 콘텐츠 자동 생성 등 시니어들도 흥미로워할 많은 생성이 가능하다. **장병희 기자**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13.9%	42.9%	2.3%	0.0%
매우 좋음	양호	노화 시작	주의	나쁨	매우 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영치
포리뼈
좌골신경통

엎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32명의 망령들이 차례대로 아라베스크를 선보이는 '망령들의 춤'은 '라 바야데르'의 하이라이트. '발레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대작을 '마린스키의 왕자' 김기민과 '파리의 별' 박세은은 페어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음 달 찾아온다. [사진 국립발레단]

파리의 별과 마린스키 왕자... '발레 슈퍼 커플' 뜬다

“이미 정답지를 갖고 있는 친구 손을 잡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춤은 연습보다 실전이거든요. 무대에 많이 서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라 바야데르’를 알게 공부한 것이지만 기민이는 달라요. 수십 번 ‘라 바야데르’ 무대에 섰니까요.”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공연에서 무희 니키아를 연기하는 파리오 페라발레 에투알(수석무용수) 박세은(35)은 마린스키발레 수석무용수 김기민(32)과 14년 만에 합을 맞추게 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공연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며, 둘은 다음 달 1일과 3일, 두 차례 무대에 선다. 두 스타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해당 회차의 티켓은 3분 만에 매진됐다.

27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라운드 인터뷰에서 박세은과 김기민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자주 통화하며 ‘라 바야데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내비쳤다.

김기민과 박세은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발레 슈퍼스타다. 2015년 김기민, 2021년 박세은이 각각 러시아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발레단의 수석무용수가 된 이래로 이들에게는 늘 ‘동양인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무용수상을 김기민은 2016년, 박세은은 2018년 받았다. 한국인 남자 무용수 중 이 상을 받은 이는 김기민이 유일하다.

이날 박세은은 김기민에 대한 칭찬을 끝없이 이어갔다.

“과거 무용수들이 20세기 발레 전설 루돌프 누레예프(1938~1993)를 보며 자랐듯 지금은 어린 무용수들이 김기민을 보며 자라고 있어요. 기민이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무용수예요.”(박세은)

김기민 역시 “세은 누나는 어린 시절 제 우상이었다”고 했다.

“저희 형(국립발레단 수석 김기민)이 세은 누나와 예원학교 동기예요. 그때부터 누나는 유명했고 박

김기민·박세은 14년만에 함께 공연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로 호흡 내달 1·3일 공연티켓 3분만에 매진 세은과 춤추는 게 모든 전공생의 꿈이었어요.”

서로를 어떤 예술가로 바라보는지 묻는 질문에 두 사람은 망설임이 없었다. 박세은은 김기민을 “자신이 추고 싶은 춤과 무대에 대해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술가”라고 설명했다. 김기민은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많은 무용수와 관객에게 영향을 주는 집념의 무용수”이라고 평했다.



박세은 김기민

두 사람이 처음 호흡을 맞춘 것은 2009년. 당시 유망주였던 두 무용수는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주역으로 발탁돼 함께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 건 2010년 한국발레협회 ‘돈키호테’와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공연이다.

‘라 바야데르’로 무대에 선 경험은 김기민이 더 많다. 박세은은 “마린스키발레단과 달리 파리오페라발레는 ‘라 바야데르’를 자주 올리지 않는다. 내가 니키아로 출연한 것은 2010년 유니버설발레단, 2015년 마린스키발레단, 2021년 파리오페라발레에 이어 이번 공연이 네 번째”라고 했다.

김기민은 수십번 넘게 ‘라 바야데르’ 무대에 섰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작품”이라고 했다.

“같은 춤을 많이 출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나는 어차피 잘 출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위험해요. 그래서 더 작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마린스키발레단의 투어 공연

을 소화해야 했던 김기민은 공연을 5일 남겨두고 입국해 리허설 일정이 빠듯하다. 하지만 “파트너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해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 누나의 춤 스타일을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미 리허설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라고 자신했다.

‘라 바야데르’는 ‘발레 블록버스터’로 불릴 만큼 스케일이 큰 대작이다.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무희 니키아와 전사 솔로르, 제사장 브라만과 공주 갑자티의 사각 관계를 그렸다.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는 고전 발레의 아버지 마리우스 프티파의 원작을 발레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개작한 버전이다. 그리고로비치는 1991년 볼쇼이발레단을 위해 작품을 고쳤고, 2013년에는 국립발레단을 위해 한 번 더 작품을 재해석했다. 그리고로비치에 의해 재탄생한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는 막과 막 사이 흘러보내는 음악과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마임 장면에도 춤을 넣어 볼거리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홍지유기자

“속편은 위험한 작업” 24년 공들인 스콧 감독, 주인공은 30분만에 픽

(플 메스칼)

“속편은 위험한 작업이죠. 다들 1편보다 별로일 거라 생각하니까요.”

고대 로마 검투사 액션 ‘글래디에이터’(2000)로 전세계 박스오피스를 점령한 할리우드 거장 리들리 스콧(86) 감독이 24년 만의 속편 ‘글래디에이터 2’로 돌아왔다. 북미 개봉은 다음달 22일이다.

지난 25일 한국 취재진과 화상 간담회로 만난 백발 노장의 목소리는 세월을 비껴간 듯 힘이 넘쳤다. 속편을 완성한 소감을 묻자 호탕하게 웃은 뒤 “1편 나오고 4년 뒤 첫 속편 시나리오가 나

왔지만 별로여서 4년 더 묵혔다. 1편에서 생존한 모자(공주 루실라와 그 아들) 이야기로 콘셉트가 잡히면서 진척이 됐다”고 말했다.

1편의 검투사 막시무스 역할로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러셀 크로, 폭군 황제 콤포두스 역의 호아킨 피닉스는 2편에선 1편 화면을 재편집한 회상 장면으로만 등장한다. 새 검투사 주역은 아일랜드 신성 플 메스칼(28)이 꿰찼다.

로마 영웅이자 최고 검투사 막시무스가 황제 콤포두스의 계약에 죽고 20

년 뒤, 로마는 피에 취한 쌍둥이 황제 게타(조셉 퀸)와 카라칼라(프레드 헤킨저)의 폭압 속에 여전히 신음한다. 로마의 식민지 노예이자 어린 적 막시무스의 결투를 지켜본 루시우스가 콜로세움의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난다.

예고편에서 고대 석고상 같은 중후한 인상을 남긴 메스칼은 이날 화상 간담회에선 대선배 덴젤 워싱턴, 코니 니슨, 또래 프레드 헤킨저 곁에서 소탈한 청년의 매력을 뽐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저예산 영화 ‘애프터 썬’(2022)에서 11살 딸을 둔 20대 아

빠 역할로 지난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화제에 올랐다. 그는 “런던에서 연극을 하던 중 에이전시를 통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연락을 받고 그와 30분간 화상 통화한 뒤 캐스팅됐다. 그 뒤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예감했다”고 말했다.

주인공 막시무스와 루시우스 설정은 상상을 가미했지만, 실제 연년생이었던 형 카라칼라와 동생 게타 황제 시대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변주했다. 스콧 감독은 “재미가 목적인 영화지만, 1000여년 전 당시 로마 냄새가 날 정도

로 상세히 조사했다”면서 카라칼라-게타 통치 시기를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산 채로 (맹수에) 잡아먹히기도 했던 끔찍한 시대”로 설명했다.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은 길이 약 189m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60% 축소판 세트를 지었다. 사나운 개코원숭이, 코뿔소뿐 아니라 원형경기장에 물을 채우고 상어를 쫓 뒤 해전을 재현하는 검투 액션까지 펼쳤다.

노예 출신 검투사 주인공 역할로, ‘아메리칸 갱스터’ 이후 16년 만에 스콧 감독과 재회한 덴젤 워싱턴은 “로마가 하루 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데, ‘글래디에이터 2’ 현장은 압도적이었다. 나원정기자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웬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희귀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불혹에도 “전 경기 출전”... 르브론 제임스 ‘킹’ 다운 목표

(82경기)

‘전 경기 출전.’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40)가 2024~25시즌 목표를 이렇게 밝혔다.

미국 CBS스포츠는 28일(한국시간) “40세 제임스가 정규리그 전 경기(82게임)에 출전하는 것을 새 시즌 목표로 정했다”고 전했다. 전 경기에 뛰는 것은 슈퍼스타 제임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시즌 내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슬럼프도 겪지 않아야 달성 가능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성기였던 2017~18시즌(당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딱 한 시즌에만 전 경기에 출전했다. 지난 시즌엔 71경기 출전에 그쳤다.

2003년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고 NBA에 데뷔한 제임스는 올해 22번째 시즌을 맞았다. 1984년생으로 어느덧 마흔을 넘었다. 올 시즌 NBA 등록 선수 중 최고령이다. 불혹에도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전성기 못잖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임스는 지난 27일 열린 정규리그 새크라멘토 킹스전(131-127승)에서 32점 14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트리플더블을 작성했다. 세 부문



불혹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코트를 누비는 NBA 최고 스타 르브론 제임스. 철저한 자기 관리로 전 경기 출전에 도전한다. [AP=연합뉴스]

모두 양팀 통틀어 최다였다.

제임스가 이끄는 LA 레이커스는 개막 3연승을 질주 중이다. 팬들은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르브론을 두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견줄 만한 선수”라고 평가한다. CBS는 “제임스라면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다”며 기록 달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지금까지 NBA에서 시즌 전 경기에 모두 출전한 건 제임스 외에 레전드 가드 존 스타틴(2002~03시즌·당시 유타 제츠)

뿐이다.

제임스가 노익장을 발휘하는 비결은 철저한 자기 관리다. 레전드 포워드 케빈 가넷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임스는 자신의 몸 관리를 위해 매년 200만 달러(약 28억원)를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제임스는 주 6일 훈련을 돕는 개인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를 돕는 개인 요리사도 뒀다. 빠른 체력 회복을 위해 고압 산소방에서 혈액 순환을 유도하는 치료도 받는다.

르브론 제임스의 하루	
수면	취침: 오후 9~10시(8~9시간 숙면) 가상: 오전 5시 낮잠: 2시간(낮 12시~오후 2시)
식사	아침: 달걀 흰자 오믈렛, 요거트, 연어 스테이크, 글루텐 프리 팬케이크 점심: 샐러드, 호박, 닭가슴살 저녁: 샐러드,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파스타 소량
훈련	주 6일 (웨이트 트레이닝 3일, 유산소 운동 3일)

제임스는 또 글루텐프리 빵과 생선 위주의 요리, 채소를 즐긴다. 바나나와 같은 과일 이외에 간식은 먹지 않는다. 그는 어린 시절 ‘피자 마니아’였지만, 선수가 된 뒤로는 딱 끊었다. 철저한 관리 덕분일까.

제임스는 “스포츠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시즌 마지막까지 지켜봐 달라. (고령에도) 전 경기에 출전하는 기록을 쓰지 말란 법도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강인, 팬에게 인종차별 당해 ‘중국인’ 지칭 영상 SNS 퍼져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소속 팀 훈련장에서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PSG 훈련장으로 명시된 장소에서 선수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강인에게 ‘가자 중국인’(Allez mon Chinois)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등장했다. 26일 PSG를 중심으로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메이드인 파리 지영’ 등에 따르면 이 영상은 PSG의 25일 팬 공개 훈련에서 찍힌 것이다.

선수들은 팬들에게 가서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며 차례로 지나갔고, 이강인이 지나갈 때 ‘중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중국인이 아닌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부르는 것은 인종차별적 언행으로 여겨진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이강인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이강인을 존중하라’, ‘훈련장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다니 더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피주영 기자

김주형, 연장전 패배로 분 못 이겼나... 라커룸 파손 논란

제네시스 챔피언십서 안병훈에 저화난 상태로 라커룸 열다 문짝 부수 선수측 “변상할 것” 협회 “경위 파악”

프로골퍼 김주형(22)이 또다시 ‘비매너 논란’을 일으켰다. 20대 초반인 그가 매너 문제로 구설에 오른 건 벌써 세 번째다.

사건은 지난 27일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일어났다. 연장전 끝에 안병훈(33)에게 패한 김주형은 경기를 마친 뒤 클럽하우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화가 난 상태에서 라커룸의 문을 거세게 열어 쫓았는데 문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주형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매너와 관련한 김주형의 과거 이력도 다시 불거졌다. 김주형은 지난 8월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경기 도중 버디 퍼트가 컵을 외면하자 퍼터로 그란을 내리찍었다. 이후 그란을 수리하지 않고 홀을 떠나는 장면이 그대로 전해져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김주형은 “손상 정도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 알았다면 그냥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김주형은 지난달 프레지던트츠컵에서도 또 매너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7일 제네시스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저준 우승을 차지한 김주형. 클럽하우스 라커룸의 문짝을 훼손해 논란을 자초했다. [연합뉴스]

그는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버디 퍼트를 하려고 자세를 취할 때 다음 홀로 이동해 골퍼팬의 비난을 받았다.

김주형은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선배 안병훈과 함께 골프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를 펼쳤다. 특히 DP 월드 투어(옛 유러피언 투어)의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남자 골퍼를 대표하는 안병훈과 김주형이 연장전까지 가는 맞대결을 벌인 건 감동의 드라마였다. 2015년 이후 우승이 없던 안병훈은 우승 직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까지 선전을 펼친 김주형도 안병훈과 포옹하며 동료애를 발휘했다. 그러나 거액의 초청료를 받고 준우승 상금으로 6억원을 가져간 김주형의 문짝 파손 사건으로 대회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2002년생인 김주형은 평소 화끈한

쇼맨십으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매너를 중시하는 골프에서 예의범절과 관련된 논란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주관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진상을 파악한 뒤 상벌위원회 개최를 결정할 계획이다. KPGA 관계자는 “최종라운드 시상식 도중 김주형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 선수 측에선 ‘골프장이 정하는 대로 변상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골프장에선 ‘경첩만 새로 갈면 되는 상황이라 따로 비용 청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단 경위를 파악한 뒤 상벌위원회 회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훈준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틀리 클리닉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식스센스

카툰일레이 THE SIXTH SENSE 금주의주제 힘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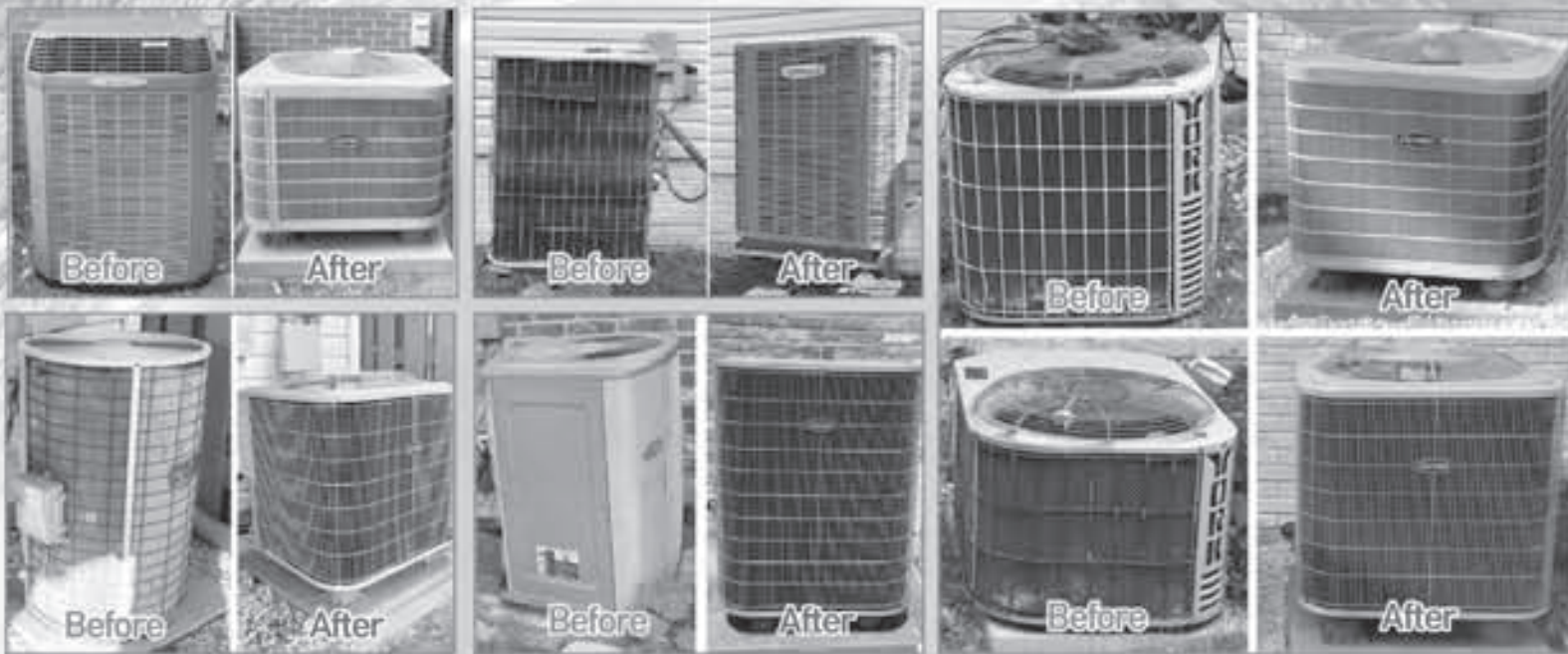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정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수도꼭지 교체 ◆루핑수리/거러교체
 ◆싱크/디스포저 ◆사이드 리페어/창문
 ◆워터히터/물새는것 ◆데크 수리
 ◆하수막힘/변기교체 ◆드라이월/페인트
 ◆썩펌프 교체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Oliver is talking to his co-worker Lucy.

(올리버가 직장 동료 루시와 얘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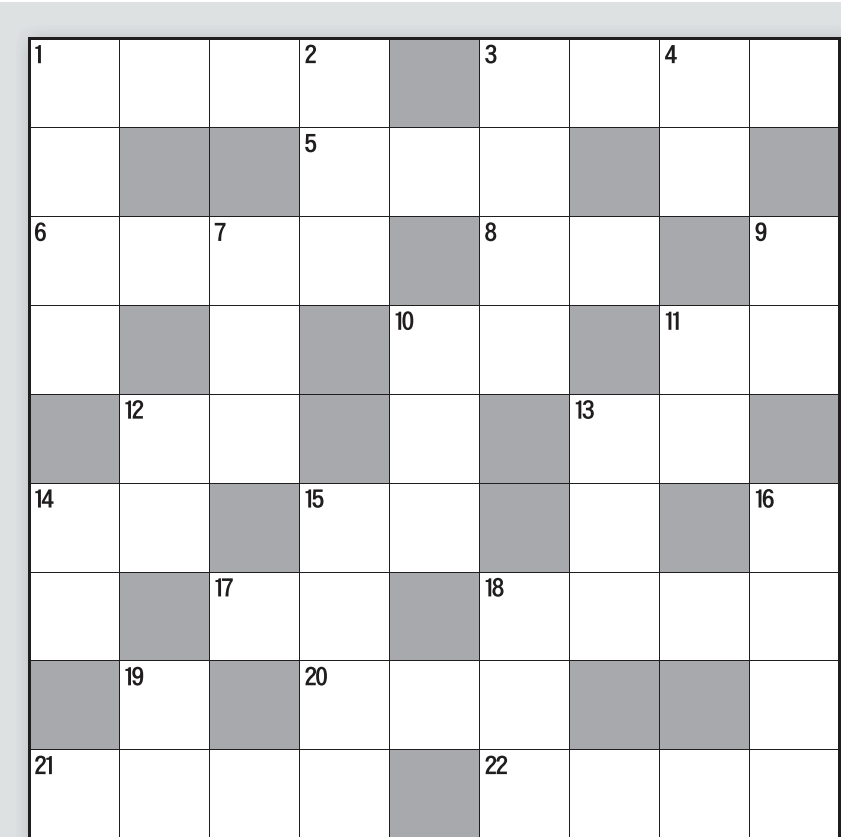
Oliver: Why are you so late? Problem putting your makeup on?
 올리버: 왜 이렇게 늦었어? 화장하는 데 힘들었어?
 Lucy: Don't be so sarcastic. It was my girlfriend Suzie.
 루시: 그렇게 비꼬지 마. 친구 수지 때문이야.
 Oliver: What's her problem this time?
 올리버: 이번엔 또 뭐가 문제래?
 Lucy: She's just broken up with her boyfriend so she needed a shoulder to cry on.

루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대서.
 Oliver: She never seem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anyone for very long.
 올리버: 수지는 누구와 오래 사귀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Lucy: It's not her fault. She just seems to have bad luck with men.
 루시: 수지 잘못 아니야. 남자 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Oliver: You're her friend. You should give her some advice.

올리버: 넌 친구잖아. 조언 좀 해줘.
 Lucy: When she falls in love she doesn't listen to anyone.
 루시: 수지는 사랑에 빠지면 누구 말도 안 들어.
 Oliver: But she listens to you when she has a problem.
 올리버: 문제가 생기면 네 말을 듣잖아.
 Lucy: Sometimes when she's desperate.
 루시: 절박할 때가끔.

기억할만한 표현
 ▶ put (something) on: (also put on something) 무엇을 바르다.
 "She usually puts on lipstick."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는 편입니다.)
 ▶ break up (with someone): (누구와) 헤어지다.
 "I'm angry at him but I'm not going to break up."
 (그 남자한테 화가 났지만 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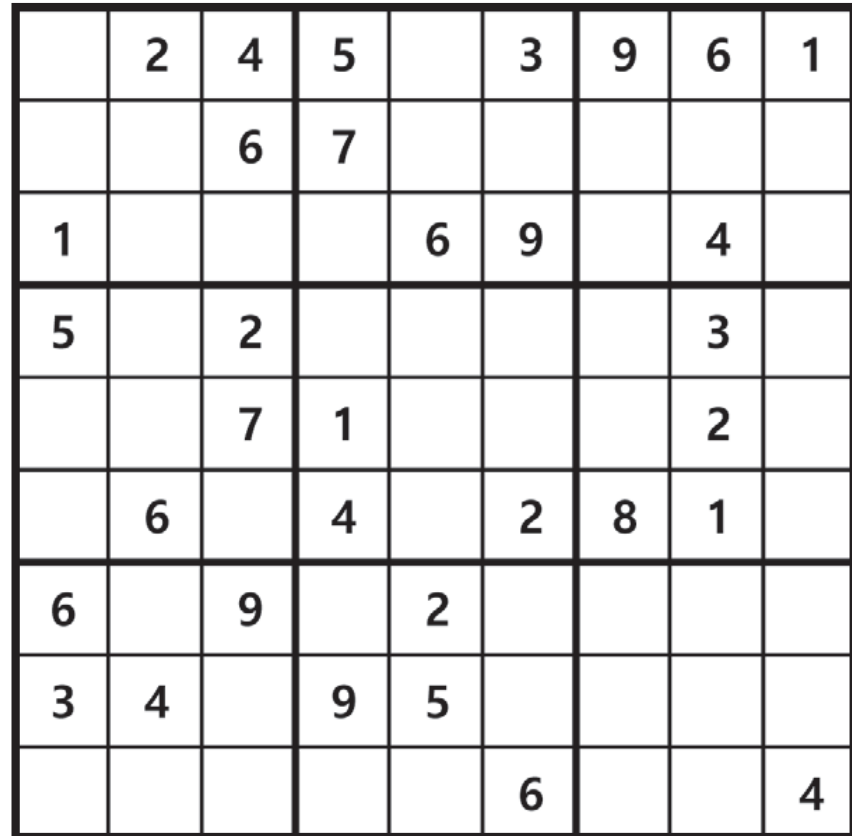
가로열쇠

(1)원 모양으로 둥글게 된 형상. ~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심봉석) (3)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함.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목 □□ (5)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 장국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6)금의 성분이 들어 있는 비율이 24분의 24인 금. 순금 (8)일 년 동안에 받는 봉급의 총액 (10)아메리카 서인도 제국의 부두교 주술사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소생 시킨 시체 (11)새나 짐승을 잡기 위하여 만든 올가미 (12)90도 각도로 만든 ㄱ자 모양의 자 (13)결혼식 때 신부가 손에 드는 작은 꽃다발 (14)가 야금이나 거문고 따위를 연주하면서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15)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두룩하게 만든 것 (17)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18)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는 질환 (20)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자나 깨나 해야 하죠 (21)오래도록 살고 죽지 아니함. 장□□□ (22)원래의 모양이나 상태로 돌아감. □상□□

세로열쇠

(1)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2)반아야 하나 아직 못 받은 돈 (3)여러 겹의 간접적인 소개로. 이 동네로 이사 와서 ~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4)지휘자가 말로 내리는 간단한 명령 (7)동양화에서 군자와 같다는 뜻으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이르는 말 (9)노래와 춤. 차내의 음주 ~ 등 소란 행위 금지 (10)자질구레한 물건을 훔치는 사람 (11)오빠나 남동생의 아내. 우리 오빠가 내 친구랑 결혼을 해서 나랑 친구는 시누이와 ~ 사이가 되었다 (12)소의 작은창자. 그는 지글지글 타들어 가는 ~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다 (13)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상태 (14)여러 개의 병실로 구성된 한 채의 건물. 한 층 전체를 말하기도 하죠 (15)말술도 사양하지 않음. 술을 매우 잘 마심 (16)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 전 □□□ (18)같은 중심을 가지는,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19)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젊어서 ~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경험을 쌓으라는 말이다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 지역**

매매 기타 구입

모지 급매(주인) 2차리에 \$9,500(내고가)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Jung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아침 양식국/달리버리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ópolis

미국 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Tel: (213)500-7363**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 대 \$1,400 (450g)
- 특대 \$1,800 (450g)
- 중 \$1,200 (450g)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신선농원 건대추 판매 11월 5일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하세요!

묵은해 대추 : NO
썬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10LBS·1BOX \$14/lb 대추	\$140/10LBS·1BOX \$11/lb 대추	\$100/10LBS·1BOX \$7/lb 대추
--------------------------------	--------------------------------	-------------------------------

전화주문 **714.833.4988**

* Pay by Zelle or Check (payable to Han You)
* No credit card
*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정통 모피의 명가

대호모피

65~70% off

2024년 10월 30일 ~ 11월 6일

시즌 특별 사은 초특가 세일

연령대와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호모피!
2025년 신상품과 함께 겨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상급 캐시미어와 100%극세사 울을 밍크와 조합한 고품질 모피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 외 많은 콤비네이션 신상품을 선보이겠습니다.

Special 가격 파괴 상품

렉스&캐시미어 조끼		\$490
신개념 니트밍크 자켓	\$5,900	\$790
신개념 니트밍크 하프	\$6,290	\$1,190
패션밍크 롱조끼	\$5,980	\$980
패션밍크 후드 하프코트	\$7,290	\$1,490
풀스킨 밍크 조끼	\$8,200	\$1,690
풀스킨 하프 코트	\$11,900	\$2,490
풀스킨 밍크 롱코트	\$13,000	\$3,490



〈 특별 사은품 〉

- 3,000불 이상 구매 고객 : 실버폭스카라 구스 자켓
- 2,000불 이상 구매 고객 : 새로운 개념의 무스탕 자켓
- 1,000불 이상 구매 고객 : Fox 목도리



애난데일 행사장

일시 : 10월 30일 ~ 11월 6일까지

장소 : 타마 여성복 매장 1층 (꿀돼지 건너편)

주소 : 7224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7시까지

전화 : 718-578-3911